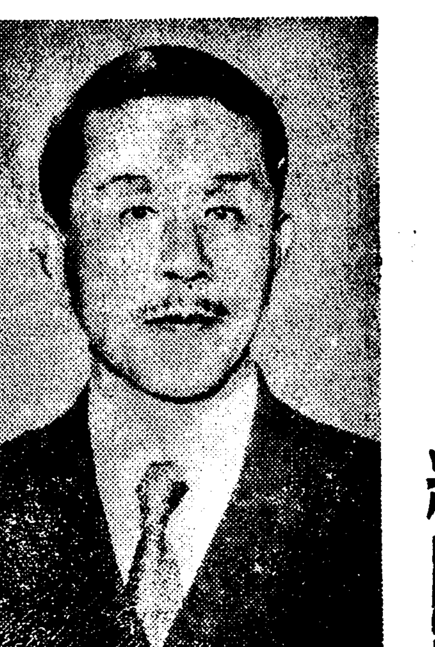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七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强硬한 條件提出으로 廣田內閣成立難期!

多少空氣는緩和되엿스나 組閣難은依然不解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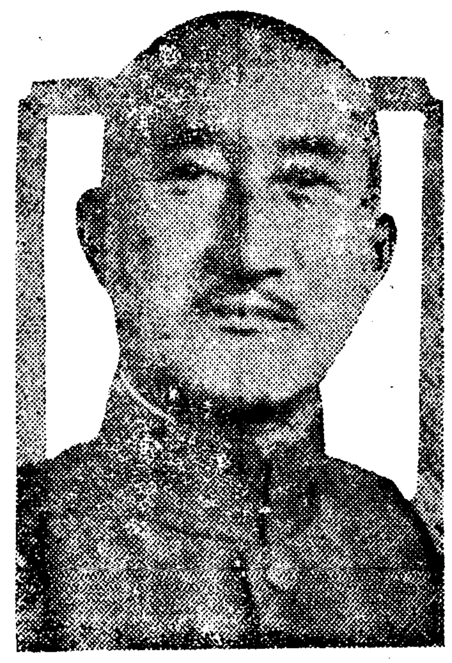
廣田·寺內會見結果


廣田外相

【東京電話電通】寺內大將은 七日午前 省首腦部와 協議한結果 午前十時二十分 組閣本部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陸軍部內에도 여러가지 意見이 잇스나 한번 大命이 降下한 以上 貴下가 後繼首相이 되는데 對하야 이러니저러니 말하는것도아니오 또 廣田內閣의 成立에 反對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貴下가 現下 非常時局을 참으로 認識하고 國政一新의 積極政策을 斷行하고 또 閣僚의 變更에도 同樣의 方針을 基本으로하야 적어도 國體明徵에 對하야 疑惑을 招하거나 또는 自由主義的色彩가 濃厚한 人物等 非常時內閣의 閣僚에 相應치안는 人物의 入閣을 阻止하지안는限 나로서도 入閣하기는 不可能하다 이는 全陸軍의 態度이다 라는 旨를 前提로, 假然個人에는 不觸하고 所見을 述하야 廣田外相의 反省을 促하엿다 이에 對하야 廣田外相은 五日夜來 考慮한 結果를 披瀝하야 懇談을 거듭하엿다 廣田外相의 心境은 顯著히 寺內大將의 意見에 接近하게된 結果 六日夜까지 延期하야 決裂된 空氣는 右會見으로 相當히 緩和되어 結論에는 이르지안헛스나 廣田氏가 다시 考慮하기로하고 同五十分 寺內大將은 組閣本部를 辭去하야 即時 陸軍省에 들어가 爲先 陸相官邸에 靜養中인 川島陸相을 訪問하고 經過報告를 한다음 省內大臣室에 杉山參謀次長 古莊次官 今井軍務局長 山下調查部長 等을 招致하야 今後의 態度方針에 關하야 協議를 거듭하엿다 大體 以上과가티 廣田內閣의 成立可能性은 조금 增加된 情勢이나 加新內閣의 態度와 閣僚人選에잇서서 兩者의 妥協이 成立되더라도 寺內陸相候補로서는

一、國體明徵의 徹底的勵行
二、廣義國防의 徹底的强化
三、國民生活의 安定確立
四、重點을 蘇滿中에 置하는大陸政策을 第一로한 外交의積極的刷新

의 四大項目을 入閣條件으로하야 이實行의 確認을 獲得할 決心이오 또 右四大項目中 第二、第三의 兩項目은 莫大한新支出이 絶對로 必要한것이므로 드되어 廣田內閣이 實現되더라도 幾多의 曲折은 免키 難한 情勢이다


寺內大將

許新任大使上海出發

【上海七日發同盟】新任東京駐箚大使許世英氏는 七日午前三時 郵船淺間丸으로 上海出發 赴任의 途에 올랏다

意見依然不一致

【東京電話電通】廣田外相은 六日寺內大將과의 會見以來 愼重히 軍部의 要望을 考慮하고 組閣大命의 重大함에 鑑하야 熟慮를거듭한 結果 七日朝十時二十分 再次寺內大將의 來邸를 求하야 會見하고 廣田外相으로부터

非常時局의 重大함에 處한 組閣方針의 愼重을 期하기爲하야 陸軍部內의 要望을 듯는 것을 不惜하다는旨의 誠意를 披瀝한데對하야 寺內大將은 軍部의要求를 거듭 開陳하고 또 陸軍側으로서는 부질업시 廣田外相의 組閣에 批議를加할意思는 少毫도업다는 旨를 述하고 懇談을 거듭한後 同五十五分會見을 終하얏는데 本會見의結果 廣田外相과 寺內大將間에 아직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게되지안헛다

依然樂觀不許

【東京電話電通】廣田外相의 組閣은 七日午前의 寺內、廣田會見으로 一縷의 光明을 認하야 連日來 險惡化한 空氣는 多少 緩和되엇스나 陸軍當局은 時局認識의 點에잇서서 廣田外相과 見解를 달리하고잇다는旨를 明白히하고잇는 關係도잇서서 廣田外相의 組閣方針이 軍部의 要求를 容納함에 因하야 반드시 局面打開가 되리라고 結論지우는것은 早計로서 現下의情勢는 單히 一縷의 光明을 認定하엿다는데 不過하고 形勢는 依然히 逆睹키 難한바이다

軍部側의讓步는 困難倍加를意味

組閣에對한海軍見解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은 陸軍側의 不滿表明으로 依然 組閣의 危機에 直面하엿는데 右에 際하야 海軍部內에서는 大體 如左한 意見이 有力히 行하고잇다

一、廣田首相으로서는 自己의信念으로 組閣方針을 堅持치안흘수업슬터이나 軍部 特히 陸軍側의 要望을全面的으로 容認하는것은困難하리라고본다

一、例컨대 廣田首相이 軍部側에 讓步하야 組閣方針을 變更하야 再次 閣僚銓衡을하더라도 그困難은 當初부터 倍加할것이다

岡部陸軍次官 廣田氏에意向傳達

【東京電話同盟】陸軍政務次官岡部長景氏는 七日 午前九時十分 組閣本部에 廣田新首相을 訪問 陸軍側의 意向을 傳하고 重要懇談을 거듭하엿다

政治革新 誠意不表示限 軍部大臣不送

岡部陸軍政務次官談

【東京電話電通】岡部長景子談 昨夜(六日夜)까지의 情勢로는 組閣이 無事히 될는지 極히 疑心스러웟는데 今朝 廣田氏와 會見하고 그意向을 打診한바에 依하면 陸軍의 要望을 容認하야 誠意로써 局面打開에 努力하고잇는모양이므로 今後 廣田氏의 생각如何로는 局面은 打開되지안흐리라고도 할수업다 陸軍으로서는 今後 끗까지 肅軍의 徹底를 期하고잇는데 그러기爲해서는 政府에서는 어데까지 政治革新에 對하야 眞摯한態度를 取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에 關하야 廣田氏가誠意를 示하지안는限 陸軍으로서 軍部大臣을 낼수업다 그러나 陸軍이 廣田氏個人을 排擊하고잇는것은 決코 아니므로 廣田氏를 諒解하야 時局에對한 分明한認識下에 組閣에當해 주엇스면한다

今午後부터 變更工作에着手

【東京電話電通】廣田外相은 陸軍部內의 時局에 對한 認識及從來外相內閣組織에對한 動向에 鑑하야 最初보다도 甚히 그部署에 修正을 加하야 七日 寺內大將과의 會見에서도 이를 率直히 傳한바잇섯다 廣田外相은 從來外部에 傳하던廣田內閣의 閣僚人選을 一部變更하기로 決定한것인데 七日午後 이變更工作에 着手하기로되어잇다 그리고 寺內大將에 對해서는 修正工作을 完了한後 이를 提示하고 入閣受諾을 求하기로하고 事前에 交涉을 行하지안흘터이다 또 寺內大將은 事態가 一段落을 보앗스므로 七日午後 大磯의 私邸에 돌아가休養할터이다

寺內大將外相을訪問

【東京電話同盟】寺內大將은 十時二十分 組閣本部에 廣田外相을 訪問하엿다

陸軍首腦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寺內大將은 七日午前九時四十分 九段偕行社로부터 陸軍大臣室에 들어와 杉山參謀次長 古莊次官等과함께 同日午前 廣田新首相과 會見한 內容을 部政務次官으로부터 聽取한後 廣田新首相에 對한 回答內容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獨逸爆彈宣言으로 英政府前途悲觀

獨伊合作露骨化!

【倫敦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聯盟代表이—든外相의 歸還을 命令하고 獨逸政府의 今後의 對策에 關하야 愼重考慮를 거듭하고잇는데 히틀러總統이 로카르노條約破棄의 重大宣言을 發表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報道에 接하야 緊張하야 뭇돌니首相을 中心으로 閣僚의 往來가 자못 頻繁하고잇다 伊에兩國間의 紛爭에 關하야 英佛伊三國政府間에 外交折衝을 進하야 자조 折衝이 進行되고잇스나 和協工作의 前途는 樂觀을 不許하야 英國政府에서는 重大決意下에 드되어 石油禁輸案强化를 提議할박게업슬것이 아닌가고 念慮되는데 當初에 獨、伊兩國政府가 共同하야 로카르노條約을 破棄할 方針이라는 報道에 接하야 英國政府에서는 即時 羅馬 伯林駐箚大使에게 眞相調查를 嚴命하고 同時에 兩國政府가 로카르노條約으로부터 脫退한 境遇의 條約의 法律的效果에 關하야 外務省法律顧問에게 研究를 命令하엿던바 獨逸政府의 決議가 漸次 判明되는同時에 情勢를 重視하고 左의 悲觀的觀測을 내리고잇다

一、伊太利政府가 媾和示唆案을 應諾하지안코 獨逸政府가 로카르노條約破棄의 行動을 取하면 歐洲政局은 極히 重大한 破局에 當面할것이다 伊太利政府가 和協工作을 拒否할 境遇에는 石油制裁案을 斷行할밧게 업다고 보인다 石油制裁斷行과함께 伊太利 政府는 勿論 匈牙利 墺太利 알바니아 各國政府와瑞西政府까지도 連袂하야 國際聯盟을脫退하게될는지도 모른다

一、伊太利政府가 로카르노條約을 脫退할 境遇에 同條約을 保障할 佛國政府와의間에 締結된 軍事協定을 破棄할것

一、獨逸政府는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乃至第四十三條를 廢棄하고 라인란드의 武裝化를 斷行할것이다 獨伊兩國 政府가 로카르노條約을 破棄할 境遇에關하야 佛國代表에는 이—든外相에게 對하야 어떠한 保障을 要求하얏스나 英國政府에서는 아직 態度를 決定하지안헛는데 히틀러總統의 宣言發表를 기다려 機宜의 處置를 取할方針이라고 보인다

第二爆彈宣言!

로카르노條約爆擊

라인非武裝地帶條項等破棄 히總統世界에闡明

【伯林六日發同盟】佛國政府의外交包圍策을 압두고 오래 情勢를 靜觀中이던 히틀러總統은 六日 總統官邸에 國防相부롬베르그將軍 外相노이라—트男 軍縮特使리벤트롭氏 괴—링空相 게벨스宣傳相等 黨國의 智囊을 總動員하야 重要協議를 遂한結果 드듸어로 카르노條約爆擊의 重大決意를 全世界에 闡明하기로決定하얏다 右決定에 基하야 外相노이라—트男은 七日午前十一時 伯林駐箚英國大使、佛國大使 伊太利大使와 白耳義大使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로카르노條約에對한 獨逸政府의 決意를 通諜할豫定이다 이어서 七日正午 緊急國會를 召集하고 히틀러總統은 特히 佛蘇兩國政府가 所謂 相互援助條約의 假面下에 軍事同盟을 復活하야 로카르노條約의 精神을 蹂躪한 事實을 指摘하야 事情이 如斯히된以上 獨逸政府에서도 벌서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 乃至 四十三條를 遵守하고 라인非武裝地帶를 現狀대로 放置할수업다는旨를 力說할것으로 解釋된다

獨伊脫退後도 條約效力은不變

【倫敦六日發同盟】英國外務省法律顧問은 政府의 委囑에 基하야 獨伊兩國이 로카르노條約을 脫退한 境遇의 同條約의 效果에關하야 愼重檢討를 加한結果 獨伊兩國政府脫退의 境遇에도 로카르노條約自體는 아모런效力도不失한다는 結論에到達하엿다고解釋된다

英空軍豫算 四千三百五十萬磅

【倫敦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六日 一九三六年으로부터 三七年度에 至하는 年度의 空軍豫算을 發表하엿다 新豫算總額은 四千三百四十九萬磅 一九三五年으로부터 六年에 至하는 年度豫算에 比하야 千二百四十八萬八千磅의 增加를 示하야 空軍豫算으로서는 空前의 大豫算이다 右豫算으로 第一線空軍은 百二十三中隊 編成飛行機 一千五百臺에 達하고 人員은 現在의 三萬三千名으로부터 一擧에 五萬名에 增加될터이다

유—고國首相 反對黨員이狙擊

【벨그라드六日發同盟】유고슬라비아首相兼外相스토야디노빗치氏는 六日午前十一時二十分 議會에서 演說中 反對黨議員아로노빗치氏에게 피스톨로 狙擊되엇다 但 스토야디노빗치首相은 危機一髮에 몸을숨겨 命을 救하엿다 兇漢은 議員數名을 負傷케하고 아로도빗치氏는 即時 逮捕되엇다 犯行은 酒亂의 結果라고 보인다 議事는 午後零時十分 再開될터이다

伊機爆擊 英國서嚴重抗議

【倫敦六日發同盟】볼드윈首相은 六日이든外相과 協議한結果 伊太利軍用機가 英國赤十字班을爆擊하야 바—고인少佐以下 三名이 即死하고 數名이 負傷한 件에 關하야 伊太利政府에 對하야嚴重抗議를 提出하고 事件調查와 伊太利參謀本部의 說明을 要求하엿다

八面鋒

◇京城府內 十九個公普校 收容人員은 四千四百인데, 昨日까지 마감한 志願人員은 八千餘名이라고。

◇누구나 義務的으로 工夫할普通學校에서 半나마 떠러진天眞한 兒童이 將次 어데로갈거나?

◇入學시키기 위함보다도 떠러트리기 위한 普通學校, 結局 『이돈이 얼마짜리나? 너이 부모는 무엇해 먹고 사니?』는 試驗。

◇小學校 入學試驗이 世界에 또 어데잇나 當局에 뭇고시프다

◇軍部의 强硬態度로 流産에 瀕햇든 廣田組閣, 軍部의 態度緩和로 多少 組閣의 曙光이 뵈다고。

◇組閣은 될지 몰라도 軍部의 要求하는 四大政策을 實現할가는 疑問。

◇이 旣成政治家와 軍部와의 根本的 意見相違。

號外押收

今朝放送局飛行場火災事件으로 號外를 發行하야 當局의 忌諱에 觸하야 押收되엇습니다

朝滿間의 三戰役

—丙子胡亂과 南漢山城—

(十) 文一平

丁卯亂後로 丙子亂前의 十年동안朝鮮은 非常時期라 그러나 國論은 아주 自我中心을 떠낫섯고 國防은 거의 無備狀態에 잇섯섯다 그當時斥明이 利害關係로보아 반드시 不可할은 아니로되 먼저朝鮮을 爲함만 갓지못하고 그때도 노상無備는 아니엿스나 다만南漢과 西道에 新築한 몃몃山城은 大路에서 隔遠하므로 淸兵은 할수잇스되 兩路는 할수업게 되엇다 淸主홍타시가 入寇하기 一個月前에 우리에게 보낸 글월中에 말하엿스되 『貴國多築山城 我當從大路直向京城 其可以山城捍我乎 貴國所恃者江都 我當踐踏八路 其可以一小島保國乎 貴國持論者文官 其可以揮筆却敵乎』 그가 우리의 國情을 손샅가티 꿰들고안저서 肺腑를 찌르는듯한 말로 侮嘲를 퍼부엇다 이보담 압서서 丙子二月에 『홍타시』가 滿洲와 蒙古諸王의 勸進에 依하야 後金汗으로 大淸皇帝를 稱하려할새 朝鮮에 使者를 보내여 承認을 求하니 朝廷은 激昂이 甚하야 使臣를 버이고 國交를 끈자는 議論이 크게 이러낫다 그네 淸汗이 稱帝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朝鮮人이 相關이 업건만 夷狄에게까지 大義를 가른치려고하는 義理東邦의 自任으로 僭稱한다하야 『仁祖께서도 諸道에 내리사 斥和를 宣明하심에 이르렀다 使臣는 이不遜한 氣象을 보고 逃走하는 途中에서, 諭書하나를 奪去하엿는데 淸主『홍타시』以下 諸臣이 크게 憤怒하야 大擧入寇하려 하엿다 그러나 그네는 오히려 入寇하기前에 그出師의期日과 妥協의條件을 먼저 보여주어 朝鮮의 反省을 求하엿스나 朝鮮에서는 衆論이 이를 欺誘의 虛喝이라하야 何等의對策을 講究하지아니하고 잇섯다 그리다가 仁祖十四年十二月初九日에 鴨綠江을 건너선 淸將馬福塔(馬夫大)의 先鋒軍이 商人의 變裝을하고 星夜로 疾風가티 달려와 同月十四日에 弘濟院에 다다치매 미처서야 朝廷이 비로소 驚駭하야 이 날아침에 廟社는 江都로 先行하고 저녁에 車駕는 南漢으로 潛幸하섯다 內賊이나 外寇이나 한번 오기만하면 都城을 반드시 버리게쯤 國本이 薄弱하엿다 敵의兵勢는 滿洲、蒙古、漢軍을합하야 무릇十萬이엇는데 朝鮮側으로 말하면 南漢城內에 一萬二千이 잇슬 뿐이오 勤王兵은 아즉 이르지 못햇다 그런데 敵兵은 벌서 十五日부터 南漢城外에 追至하야 把守하고 十六日에는 大軍이 와서包圍하고 翌年丁丑正月初에는 淸主『홍타시』가 와서親히 指揮하며 연방敗盟의責을 我에게詰問할때 各道勤王兵은 모조리 戰敗하고 말게되니 重圍에빠진南漢孤城은 실로 危機一髮에瀕하엿서라 그러나 南漢孤城속에 가친朝鮮群臣은 戰和守의 三策中에 하나도 決定을 짓지못하고 밤낫爭論으로 四十六日을 보내게쯤 되엇다 食糧이 乏絶하고 軍情이 騷然하야 더持續하기 어려운形便인데 正月廿二日에 江都가敵將多爾袞에게 失陷한바되어嬪宮大君과 群臣妻子가 모다淸陣에 被虜되엇슴뎌러 宗社가 이미 被陷한바엔 다시 무엇을 願講하랴 이에『仁祖께서 正月三十日에 親히 淸의軍門에 나아가 和를請하시고 일즉明에 對하던 모든禮를 淸에 行하기로 定하야 丁卯에 맷즌 兄弟의約을 이에 이르러 君臣의盟으로 고치니 이것이 丙子胡亂의 終局이다 南漢下城後에 淸은世子와大君과 大臣의子弟를 볼모로하고 斥和의臣 洪翼漢等三學士를 잡아가지고 北歸할새 淸의要求에依하야 朝鮮이 援兵을 내여 淸軍과한가지로 椵島를 攻伐하엿다 父母邦인明에 對하야 干戈를 꺼구루 메게된은 아무리한것이나 當時朝鮮의 가장 苦痛으로 녀이던바다 어리하야 朝淸間의 얽혓던 모든懸案이 淸算하게되고 八年뒤에 淸이 北京에 奠都함에 이르러는世子大君이 還國하시게되엇스나 朝淸의關係는 從來二百六十年동안 日淸戰爭때까지 持續하야왓다。 淸의 再次入寇는 쿳치게한朝鮮을 아주支離케하야 곳자대로 生民은 魚肉이되고 宗社는 丘墟가되는慘禍를 입엇다고 하겟다 仁祖朝廷의 無謀와失策이 이에이르러는 크다 아니할수 업다。(끗)

아무리하여도
中學만큼은
안마치면안돼·事務의餘暇에
된다
直感式速成中學講義錄을배우라。會長은天下에高名한巢鴨中學校長 遠藤博士오 敎授法은 本會獨特한 直感式 알기쉽고자미나는講義로
學校에가는十分의一의費用과
一個年의短時日로
中學全科를卒業하게되다。詳細는 只今곳 (朝鮮日報에서보앗다) 說明書보내라고
東京神田三崎町
帝國中學會에 葉書로申込하면 見本付說明書無代送呈함

現代는知識의싸홈이다。무엇을하던지中學程度의學力이必要하다。中學校에못가보앗든
일의餘暇에家庭에서배워라
獨學으로中學卒業

당신은 편지를
近者好評의…便紙研究會에서는 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로短時日에便紙善手가되도록한다。詳細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見本送付하라』고 (東京神田區三崎町三=手紙研究會)에 葉書로申込하면說明書無代送呈함

ペン글씨熟達은
時代의勝利者

▼記帳에나
▼片紙에나
▼事務에나
▼筆記에나
▼原稿에나
▼其他무엇에나
合理的敎授法
只今好評인 透寫式練習法이란 最新式 拔群한新法으로서 가장合理的인練習法으로 容易히短時日에 日本文字、英字、數字等이 會字흥하게써워진다。只今곳『朝鮮日報紙上에서보앗다』 說明書를付送하여주시오』라고 葉書로申込하면 詳細한說明書를無代送呈함
東京神田區三崎町 ペン習字研究會

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約百名
▲出願期日 三月二十日迄
▲試驗日割 三月二十五、二十六、二十七三日間 詳細事項은直接本校에問合 (平壤府水玉里二三三)

第一學年生徒募集
入學手續期日 自三月十六日至四月二日
場所 釜山驛前 鳴戶旅館 大邱中央通 吉川旅館 京城本町 平田旅館 平壤壽町 三根旅館
(各旅館에出張하야 即日銓衡後入學許否決定함)詳細는 各旅館에問議함事
(文部大臣認可認定)
豐國中學校
甲種豐國商業學校
所在地 門司市

果樹苗木 養成販賣
定價表進呈
開城南山町
興林農園本店
振京一五〇三七

工業은
人生의幸福이오니 有意諸氏는 二錢切手添送하시면◆洗濯石鹼製法◆增酒法◆鍍金法◆化粧品製法에關한規定書無料送呈함
京城府長沙洞二一九
泰昌工業所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義잇는大事業紹進
第一 ... 第二 ...
大阪港區市岡西四八市場通 內外貿易株式會社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明治チヨコレート
쪼코레—트
美와健康에의近代食料品!

營康美를獲得하기에는榮養食을攝取하야서 內面부터皮膚의色調를조케하는것이必要하다明治조코래—트아말노참으로適當한營養과淸新潑潑한氣分을주어서豊富한榮養에依하야고흔肌膚를맨들고色澤을빗나게합니다

東京·京橋 明治製菓株式會社

今曉京城飛行場에大火
旅客機等○○臺全燒
두時十五分格納庫에서突然發火
原因은方今繼續調査中

(三月七日午前十一時朝鮮軍司令部發表) 오전두시십분에 경성비행장격납고(京城飛行場格納庫)에서발화하야 동세시이십분에 진화햇는데 그곳은 불을끄기에 매우불편하야 격납고가전소되여 대촌해군항공대(大村海軍航空隊)에서연습키위하야 조선에 건너와서 체재중이든 해군기 일부와 항공회사 소속기도소실되엇다 원인에대하야는 방금조사중이다

國際航空路에는無異狀

경성비행장은 만주와 일본내지를 련락하는 국제비행장으로 매일 려객긔가 래왕하는곳인데 일본공수(日本空輸)회사에서는 선로의 중요성을인정하고 곳 본사와 연락을취하야 정기항공로는 평상과가티 게속하리라한다

大村飛行隊歸還
北朝鮮飛行은그만中止

경성여의도 비행장(汝矣島飛行場)에머물고잇는 대촌해군긔(大村海軍機)는 북조선비행을그만두고 칠일정오전긔비행장을 떠나 원대로 도라가기로 되엿다한다

傳染病菌에一齊射擊
全府民에豫防注射
爲先官公署、工場、學校부터始作
京畿道의防疫動員令

작년에 적리(赤痢)장질부사(腸窒扶斯)등 소화긔계통전염병균에게 꾸준한맹습을바더 또거운경험을한 경긔도위생과에서는 금년에는 일찌부터 부민전부에게 일제예방주사를 시행하야 미연에 아무서운병균을 물리칠계획으로 오는십륙일부터 사월금음까지 부내관공서(官公署)、학교단체、사십명이상인원을 수용하는큰공장에 우선예방주사를 실시한다음 사월오일부터 약사십이일동안 계속하야 현경성부구역내와 신당리(新堂里)상하왕십리(上下往十里)신설리(新設里)아현리(阿峴里)、공덕리(孔德里)일대의 네살미만되는아해와 칠십세이상의로인 신장염(腎臟炎)심장염(心臟炎)협심증의 환자이외의 전주민에게 일제히 예방주사를 두번식 시행할터이라한다

郵便貯金激增
二月中近十四萬圓

이것도경긔가 좀나아진덕이라고나할가! 지난이월중 전조선우편국소에 새로우편저금을 한사람은 십삼만팔천칠백륙십구명으로 전년이월중에 새로저금을시작한 인원수와 비교하면 이십팔할사분이나 격증되엿스며 이월중에 전부우편저금을 차저간 인원은 이마일천오백사십사인으로 전년이월중에 전부 차저간 인원에비교하면 사분가량이 주럿다 그리고 이월말 현재의 저금자수는 삼백오십사만 구천륙백삽십삼인으로 그예금액은 오천사백 사만이천구백이원에 달하야 이것을 전년이월말 현재수에 비교해보면 예금자수와 및 예금액에잇서서 모다 일할삼분가량이 격증되셈이다

水橋郵便所에
電信電話開通

체신국에서는 황해도수교(水橋)우편소에 전신과 밋전화통화사무를 취급식히기로되야 그간준비중이든바 공사가 대개끗낫슴으로 오는삼월십일일부터 전신과 전화통신사무를 개시한다고

끄칠줄업는溫情
이번엔、Y·W·C·A에
"빵커"夫人、女基青에 또五千圓寄贈

지난번에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校)에 현금오천원을 긔부한빵커부인은 이번에는 또여자기독교청년회에 현금오천원과 자긔집 응접실에서 쓰든 기구 전부를 기증하엿다한다 공공사업단체에 이와 가티 두번이나 거액의 금품을 기증하엿슴에대하야 그당국자들은 모다 감사하여 마지안는다한다(사진은빵커부인)

虐待性男便注意
毒婦、잠든男便에도끼질

녀자의 원한은 참으로 무서운것이다 경긔도 가평군 상면률길리(加平郡上面栗吉里)칠백륙번지 로장쇠(盧長釗)(三七)의 안해 서홍순(徐興順)(三三)은 지난이월 이십팔일 오전다섯시쯤하야 독기로 끈하잠자는 그의남편얼골을내려찍어 죽이려든 사실이탈지되야 방금소관 장단경찰서에 검거되야 살인미수죄로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인데 죽이려든원인은 그의남편이 너머나 학대함으로 항상이에원한을품고잇든중 이날도 남편에게 꾸중을 듯고 분김에 죽일생각을하고 전긔와가튼 끔찍한 범행을 한것인데 독긔가 벗드로마저 그는 중상을 당하엿슬뿐이라한다

十年두고怨讐잡는 "不滅의肉親愛"
누이와 동생을 파러먹은 外四寸을
切齒腐心十年만에맛나告訴

십년을 기하야 마수(魔手)에떠러진 어린두동생을 차즈려고애써단긴 눈물겨운 이야기가잇다 소화십년팔월에 당시본적(本籍)황해도 연백군 은천면 련동리(黃海道延白郡銀川面蓮東里)에서 양친이죽은뒤에 외로운 집을지켜나가든 렴량성(廉良成)(二七) (女)해성(海成)(一八) 순성(順成)(一○)삼형제에게 하로는 현재시외 숭인면 회기리(崇仁面回基里)구십이번지 오계동(吳啓東)(三五)이라는 외사촌 옵빠가 차저와서 생활곤난으로 허덕이는 삼형제에게 감언리설로 속여서 평양에 다리고나와 입이련락하고잇든 리모(李某)라는 현해탄을건너가서 창기업(娼妓業)을할려고하는사람에게 오백원을밧고 파라먹엇는데 마츰 우연히 그곳에서알게된 현재의남편인 박원청(朴源淸)의 의협적동정으로자기만은 그마수를 버서나서 현재 진남포 비석리(鎭南浦碑石里)오십오번지에서 이남일녀까지엇고 따뜻한 가정을 이르고잇스나 조석으로 마음을 조이는것은 오직돌연히 떠난 어린두동생의 그후소식이엿다 그려나행방이 불명함으로 엇지할수업시 그는이래십년을 기하고따뜻한남편의 동정과 격려를바더가면서 자나깨나 소식만 기다리엿스며 사방으로 악마와가튼 원수인 오계동을 차저다니든바 전일고향인 연백군에 도라가니 뜻밧게도 그의소재를 알게되여 기쁜마음과 타오르는 분함을가슴에안고 작일바로 동대문(東大門)파출소에 한마흔 하소연을하면서 고소를 제기하엿슴으로즉시 본서에 대려다 엄중취조중인데 피의자의 자백에의하면해성(海成)(一八)만은 평남성천군성천읍(平南成川郡成川邑)박모(朴某)에게 이십원을밧고 파라먹엇다는사실이 폭로되고 이여제일어린동생의 소재는 아죽를명이라하며 그는현재 시내종로여관(鍾路旅館)에 유숙중인데 다음과갓치말하엿다 (사진은 염씨)

『하로밧비 어린동생들을 차저한자리에 모히고십습니다 어데든지 차저가서 곳어린동생들을 찾고야말겟습니다』

普校出願二倍超過로
府學務課또頭痛
最善의考查方法案出이"딜렘마"
地域配定으로多少緩和

륙일오후까지마감한 시내각보통학교의응모수는 정원사천사백명에대하야 약배나초과하여 이를어떠케 고선하는가 하는것은 해마다 겪는일이지만은 부당국으로나 학교당국으로서도 큰두통거리로서 각가정에서도 이에서 더한중대 문제가아닌데 경성부학무과에서 학교당국과 실정을잘살피어 가장적당히 처리코저하는모양이다 우선작일에마감한바에의하야보면 지원자수가 학교에딸어 만흔곳은 못치만코 적은곳은 정원에서 그리 만히 초과되지안흔곳도 잇서 결국고선에들어가서는 선발률이 놉고나즌데딸아 지원아동들에게 불리한점이 만흘것임으로 각학교의선발률을 될수잇는대로 균등케하기위하야 지원자가 만흔학교에서는 과히거리가멀지안흔학교로 지원서를 일부옴기도하고 또그중에는 조흔학교에 입학식히다고하야 일부러 거주구역바게 거주게를하고 원서를제출하여온것은 원주소구역내의학교로 원서를이첩케하리라한다

咸興高普赤色"그룹"
懲役二年、一年半式各各處刑

함흥고등보통학교(咸興高普校)에서 공산주의연구 『그룹』을조직하야 공산주의서적을 사다가 읽고 동맹휴학을 선동하고 『메이데이』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로 작년시월에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의 판결을 바든 원그학교생도 최봉규(崔鳳奎)(二○)와일년반징역에 사년간집행유예로되엿든 그학교졸업생 김상훈(金湘勳)(二二)(검사공소)량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은 경성복심법원에서 륙일에서 지전(池田)재판장으로부터 최에대해서는 일심대로 징역이년、김에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체형으로 일년륙개월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원래 이사건의 관계피고는전부열네명이엿는데 두명만 복심으로 공소하여왓든것이다

今七日各道의
警察部長을召集
時局에대해非常會議中

경무국에서는 이번동경사건에관련한 시국수습에 대한 협의와 군관민일치 기타 경찰정신의쇄신에 대한 중대협의를 하고저 칠일에 돌연 평남 황해 경기 충남북 전남 경북의 칠도경찰부장을 소집하야 경무국장실에서 회의를 열엇다 그리고 남어지 륙도의 경찰부장도 이상입내로 소집하야 이와가튼 협의를 할터이라한다 협의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칭으로 알수업스나 전기와가튼 군관민일치와 경찰정신의 쇄신책 이외에 비상시에 잇서 경찰로서 행동할 여러가지 사항과기타에 관한 중대협의를하는것으로 주목된다

今日入學試驗初陣
進明·女高·淑明一齊開始

입학난 취직난 생활난 등등난중의하나인 시험지옥이 봄빗과가티 차저왓다 시내에잇는 경성녀고(京城女高)숙명녀고(淑明女高) 진명녀고(進明女高)의 각녀학교에서는 칠일부터 입학시험을 시작하엿는데 녀고 숙명은 일백오십명모집에 각각 사백오명 사백팔십사명의 지원자요 진명은 백명모집에 삼백칠십칠명의 지원자가 잇다하니 세사람 혹은 네사람을 이겨야 겨우입학의 월계관을 그들 머리우에 올려노흘수잇는셈이다 삼난(三難)의 처음부터 인생행로는 험치아닌것을 여긔서도 우리는 가히알수가잇다 (사진은 시험장의 자녀들을 걱정하는 문전의부형들=進明女高에서=)

"좁은門"노리는童眼
控室에焦燥한어버이마음들

中等公民學校擴張

시내태평통(太平通)경성중등공민학교(京城中等公民學校)에서는 지난번 시외신당리(新堂里)에잇는 총독부소유토지 이천여평의 불하를 신청햇든바 이지음그것이 불하되엿스므로 불원간에 공사착수를 하리라한다 그리고 일반중등과(中等科)외에 상업과(商業科)까지 두게되리라한다

大東、善隣 七日에卒業式

부내 대동(大東)상업학교에서는 오전열시반에 선린(善隣)상업학교에서는 오후한시에 각각그학교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대동상업학교는 오십륙명 선린상업학교는 본과(本科)구십이명(그중조선인이十명)실습생사십륙명

應募四百突破
南原公立普校
百八十名募集에

【南原】전북남원 공립보통학교에서는 금번신학긔에 일학년생 백팔십명을 모집하리라는데 지난이월말일까지 동교에접수된 지원아동총수는 벌서 사백여명을 돌파하여, 일반학부형의 걱정과 아동선발문제로 학교당국의 번민은 남원사회에 큰충동을주고 잇다한다

醉客이留置場身勢

도화동(桃花洞)일백이십번지박모(朴某)(三○)는 오일밤 신정(新町)에서 술을 마시는벗탈에 이역시 부랑행을 하다가 본정서(本町署)에검거되엇다

여기도마껄리랄

종로(鍾路)오정목 삼백구십번지 복기성(福基成)(二○)은 오일저녁 동일백시십륙번지 김해원(金海元)선술집에서 실컷짜리막걸리한잔마신것이 페도라가는바람에 야단올친모양인데 필경동대문서에 검속되엇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호리고 或은 비나눈이조곰내릴것갓다 明日은 호리고 비나눈이조곰내리나 漸次로개이다 京城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度
最低 零下八度四
今朝最低 零下四度
今日正午 一度九

運動競技
"米黑人選手不振"

【뽀스톤發同盟郵信】第四十七回 뽀스톤陸上競技室內選手權大會는 二月八日뽀스톤·가-덴·에서 擧行한바 短距離界의雄『피콕』『메트칼프』兩黑人選手는『뿌룩크린』의『시-겔』選手에게 敗하엿스며 世界的投砲丸選手『로-란스』는十五米級의『사이쓰』에 敗하는意外와는 別異한戰績을 남기엇는데 高障碍의『굿드』는이날四十五碼障碍에 今年『씨-슨』三回更新하야 世界타이記錄五秒八을 作成하엿고『오브라이엔』은六百碼를 一分一五秒九로走破하는 好記錄을 지엇다 이러하야 新進의擡頭는 놀라운바잇서 今씨-슨에는 相當한 異動이잇슬것으로豫測된다

中國代表八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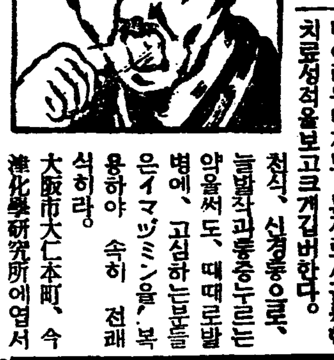
獨逸伯林 準備委員會에 到達한 情報에依하면 伯林大會에參加할 中國代表選手는 陸上、蹴球、力技、水上、拳術等 全部八十名이다

萬米優勝者隱退

『로스앤젤스』大會陸上競技 一萬米에 優勝한『波蘭』의『크소진스키-』는 再昨年부터 心臟한後病으로 因하야 現役에서 隱退 國立體育研究所附屬『트레이너』가되여 後進指導에 努力하기로되엿다 『크소진스키-』를 일어버린 波蘭陸上界는 八百米크지알스키-氏(昨年一分五一秒六으로 世界第一位)에게 希望을부치고잇다

平壤 廣林商會 高級綢緞專門

喘息神經痛
血液의淨化로治癒



正月부터심한냉으로써、천식、신경통이생기고 다시기후가변하게되지、더욱심한발작과 통증의생기게되니 속히치료치안으면안된다。 이런병은、술 담배와성병의독으로 피가탁하여순환이 악화되야생긴다。 예를들면신경통으로 한쪽다리(足)압흘대에는、건강한 다리보다찬것도그증거이다。 승취분(勝取粉)은今津佛國理學博士가 완성한 イマヅミン은 혈액중의병독을 대변과 소변으로 배설하야 병의원인이되는 탁한피를 정화식히며순환을 조케함으로써、곳기침、담、통증을 제거하며、인후가걸-걸-씩-씩-하는것을낫게하며、발작과통증을 예방하면서、전쾌에이르게한다。효력이속하고、조곰도부작용이업다。 지극까지불치의병이라고、단염하던여러동병자도、본제로서흡족한치료성적을보고크게깁버한다。 천식、신경통으로、늘발작과통증으로는 약을써도、때때로발병에、고심하는분들은イマヅミン을、복용하야 속히 전쾌식히라。 大阪市大仁本町、淨化學研究所에엽서로청구하면설명서와 양생법을보내여드림。 十일분二원四○·三十일분六원五○·五十일분十원·전국약점에서팝니다。

流行歌 이한장오로
逸才全壽麟의面目躍如!
全壽麟傑作集
빅타
金福姬 李圭南
레코-드一三番号四九○○

傑作盤을網羅한
三月新譜(二月廿日發賣)
追憶의幻影 蔡奎燁吹込
콜럼비아레코-드

에 치통과두통
노-신

의옥곰
자녀가업스신분께
조혈정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光化門局三七番 六四二番
調血精發賣元 日光製藥社

고초가루
製造都賣元
興信製粉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七
電話 一八四五番
振替釜山三九三八番
地方注文迅速取扱 時價表請求次第進呈

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目錄進呈 要二錢切手
京城公平洞 東亞商會
振替京城一五三九六 電光二二六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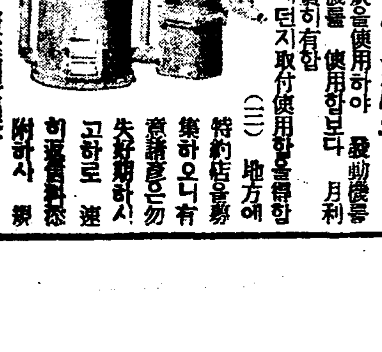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一番地(電本五三六○番)
◎新學期開始 四月七日(前期學則要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 第二、三部(各中等學校入學及上級編入受驗準備)
◎中學校高等普通學校商業學校實力養成科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七回生徒募集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第一部
◇學則要二錢切手 校舍大廈張數地六百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二一五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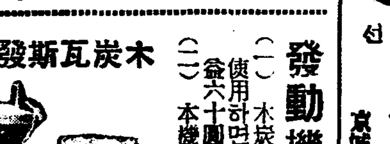
三百圓資金으로……
月利百圓比率確實
木炭瓦斯發生機



發動機使用諸彥의福音
(一) 木炭瓦斯發生機로木炭을使用하야 發動機를 使用하면 石油로 發動機를 使用함보다 月利金六十圓乃至百圓이 確實히有함
(二) 本機는 何式發動機에던지取付使用함을得함
(三) 地方에特約店을募集하오니 有意諸彥은勿失好期하시고 하로速히照會하심을
發賣元 合資會社 三浦製作所
朝鮮總發賣元 三成機械商會

社員募集
專門大學出身優待採用
履歷書持參詳細來談
締切期限三月十五日限
本社文常務南鮮出張支部設置希望者는直接面談
京城黃金町二丁目太平生命ビル
中央理財社
電(本)二一四○·一九七○番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恩給
長期低廉迅速 他에比較하야最有利 特色照會回答
京城府校恩洞一六○ 鄭商會

靑空의아래 登場一分前 봄의表情練習을엿보다

◇

鳥籠안의「카나리아」가 갑자기오늘아츰부터 설레기시작한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아마도 金빗털에싸힌 가슴이 벌서봄을 알른게지요

◇

이때만되면 江언덕에는 여기저기 빨래가 돗폭처럼 푸른한울로향하야 펴덕입니다。

그미테서「하모니카」를 부는소년은 이봄의「로맨티시즘」을長安의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께다른 詩人입니다

◇

그러치안어도 봄은벌서 山羊의 젓가슴에 여무럿습니다 오늘밤「레꾸혼」은 아마도또한마리 봄을 잉태할상십습니다

◇

자ㅡ동무여 노픈데로더노픈데로올라갑시다 저푸른한울을마시려면 우리의 키가 더자라야하지안습니까?

異次頓의死 【113】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그러하건마는 이차돈은 공주를 차더찬 바위돌로 보기가심히 어려웟다。젊은 여성의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향긔로움이그 바위ㅅ돌에서 자꾸만 돗아나는것 가탓다。

「아니!」

하고 이차돈은 달아나랴는 마음의 곱비를 꽉 붓들엇다。다시 무편심한 상태에 들어갈수가 잇섯다。그러나 그것도 일순간!

공주는 한참이나 말업시 안젓더니 번개가티달려와서 이차돈의 목을 껴안고 그 무릅우에 몸을 던젓다。이차돈은 숨이 막힐듯하엿다。이차돈은 처음에는 공주의몸이 떨리는것을 느끼더니 마츰내는 제 몸까지도 떨림을느꼇다。

「공주마마!」

하고 부르는 이차돈의 음성은 떨렷다。이차돈은 제 코ㅅ김이 뜨거움과 제 가슴이 다듬이방망이 치듯함을 깨달앗다。

공주는 대답이 업고 다만곤하게 잠이 든 사람모양으로숨ㅅ소리만 높앗다 나잣다、빨랏다 하엿다。이제는 몸이 떨리던것조차 업서지고 다만 이차돈의 목을 감은 공주의 팔만이 잇다금 경련하는모양으로 떨릴뿐이엇다。

「공주마마」

하고 이차돈은 또 불럿다。

「이몸은 이러케 서방님의 품에 안긴채로 죽어요!」

하고 다시는 아모 말도 아니 듯겟다는드시 이차돈의 귀밋헤 꽉 붓튼 고개를 흔들엇다。공주의 불ㅅ덩어리 가튼 입셜이 이차돈의 목의 살에 스쩍스쩍 스치는것을 이차돈은 느꼇다。

「공주마마。말슴을 하시공 하신다면 말슴을 하시고」

하고 이차돈은 발락발락하는 공주의 동을 보앗다。

공주는 말업시 또 고개를 흔들엇다。

이차돈은 공주가 한다던 말이 이것인것을 알앗다。그리고 한번 길게 한숨을 쉬엇다。

낫에 상긔가 되고 눈이 잘 보이지아니함은 다만 공주의 두 팔이 목을 꽉 낀 까닭만 아니엇다。

이 모양으로 시간은 흘러갓다。틈이 다 깁히 잠든 사람과 가탓다。오직 이차돈만이 마치 줄이고졸려서 나려감겨드는눈을 억지로 뜨고 안 자랴는 사람모양으로 쓸어지는 마음을 때때로 일으켜세우고는 이 경우를 어떠케 버서날까를 생각하나 역시 그 마음은 마치 끈하게 졸리는 아이모양으로 일으켜세운 순간에는 눈을 번쩍떠보다 다음 순간에는 또 눈을 감고 쓸어젓다。

이차돈의 두 손은 이차돈도 모르는 동안에몇번이나 공주의 허리 우에로마조 올라왓다。그럴 때 마다 이차돈은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뒤로 돌렷다。

이차돈은 아난가 마등가의 일을 생각하려하엿다。그러나 아난은 마츰내 마등가를 껴안고 쓸어젓다、하는것처럼만 생각혓다。아난이 마등가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양은 보이지아니하엿다。

이차돈은 그날 아난이 석가여래에게 꾸중을 밧던 광경을 생각하엿다。「네가 알기는 만히 안다、마는 아는것만은 힘이 아니다!」하고 석가여래께서 아난이 지식만 만코 마음에 닥금이 적은것을 걱정하시는것을 생각하엿다。그러나 마치 아난은 다시 마등가의 품으로 들어가는것만 가티 보엿다。

이차돈은 차차차차 제 마음이 호려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저와 공주가 녹아서 하나가 되어버리는것처럼 느끼게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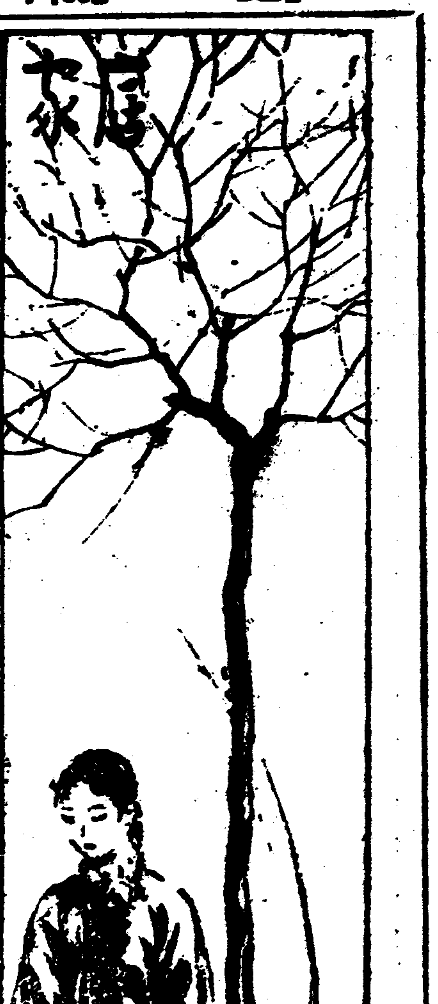
동안이 얼마나 지낫는고? 초가 거의다 닳앗다。조금만 더 잇스면 촛불이 꺼질것이다。그러나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내 마음ㅅ불이 꺼지지 아니할까하고 이차돈은 빙그레 웃엇다。

이차돈은 새벽에 숫야으름을 깨달앗다。이차돈은 또 한번 그래 웃엇다。

이차돈은 손을 들어 공주의 머리를 쓸엇다。그리고 평정한 어성으로、

「공주마마。하신다던 말슴은다 알앗소。절 역사가 얼마아니남앗으니 다끗나거든 부부가 되지온」

하엿다。



자비스런 봄햇볏이 애기들을 불러낸다

눈압헤 안보인다고 방심못할일 돌보아야할것이 만타

한겨울내내 방ㅅ속에 가치어서 갑갑히 살어온 애기네들 봄ㅅ볏이 따뜻해지기 무섭게 박그로만 나갑니다。방ㅅ속에서 말을 일러는것보담은 박그로 나도는것이해롭지 안하니까 어른들도 야자무방으로 생각하셔서 내버려 두십니다。그러나 애기네를 박그로 내 보내시는데도 그만한주의가 잇서야 합니다。만일 주의를 하지안하시다가는 오히려 재미업는 결과를 맺게되지 말란법도 업습니다。애기네를 기른다는 그것이 본래 부터용이한 사업이 아니요 또용이한 로동이 아닙니다。언제든지 어머니나 할머니되신분은 그 점을 잇지마서야합니다

첫재로는 애기네들이 박게나가면 흙장난이 첫재이요 흙장난을 하면 옷을 버리기 첫재입니다。그러다고는히 웨 옷을 버렷느냐 옷을 버리지 안코는 놀지못하느냐 걱정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잘탑 무정지졍업니다。자라나는 어린몸에 작난꼿이 입어서 옷이 아깝운것을 언제 재교합니까? 또 애기네의 발육으로 보더라도 흙에 동글며 마구 뛰고 노는것이 좀 조흡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고운옷으로 호사를 시키지 말고 허름한옷으로 아무러케나 입히어 두십시요。그래서 옷에 흙이 좀 뭇거나 어쩌거나요 꾸중을 말고 내버려 두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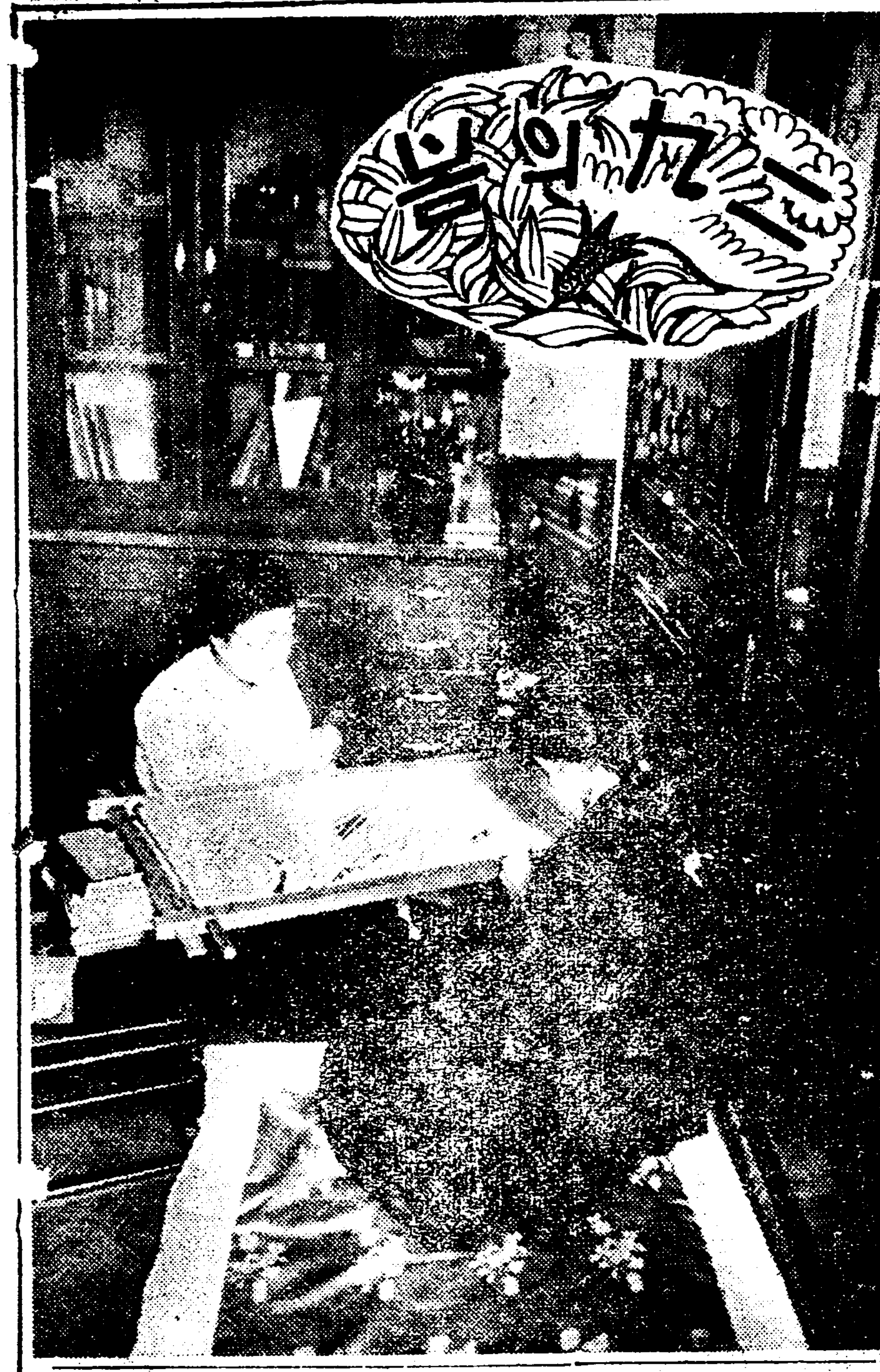
×

둘째로는 애기들이 흙작난하야 손발은 물론이요 왼몸이 흙투성이가 되게됩니다。그런대도 자조자조 씻기지를 안코 놔두니까 때가 더게 가마귀가티 새까마케 되야 버립니다。남보기에도 불풀이 사납거니와 그애기네의 건강에는 조흘리가 잇습니까? 감긔가든다 부스럼이 난다 그로인하야 병이 생긴후 비로소 약을 먹인다 의사를 부른다 야단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곳곳 손발도 씻기고 머리도 감기고 또 자조자조 목욕도 시키십시요。아모리 귀찬코 성가시어도 그러케 해서 애기네를 정하게 기르십시요

×

셋재로는 당장 눈아페보이지는 안코 일에는 절망구가되야 애기네의 존재를 깜작이저 바리는 수가 비일비재입니다。그래서 작난에 열이 오른 애기네로하야금 오래동안 찬바람에떨게하기도 하고 또 점심가튼것을 못 먹게도 하니아조 재미가 업습니다참참이 어듸가서 노나도 보살피시고또 참참이 불러드리어 점심도 먹이고 몸도 녹히어 주십시요。그뿐이 아니라 못된 동무에게 끌리어 안갈데를 갈는지도 모르고 못된자에게。속아서 어듸로 붓들려 갈는지도 모릅니다。또 교통사고가 만흔때 어떠케될는지도 모르는것입니다。어차 어피간 애기네를 박게 내노코 태연방심은 절대로 마십시요。

×



가차이서보는눈 ④

"모친이주시든 월경대아홉개"

—지금의어머니는처녀때에숙맥—

記者 엄격합세던 처녀의생리적변동이라든가 또는 자연적으로 이러나는 심리적변화에대해서 선생이 아시는대로 말슴해주십시요

兪 제가 뭘알어야 말슴해 되리지요

記者 다-자란 따님을 두셋슬뿐아니라 선생자신이 친히그한때를 지나보신것만큼 이점에 잇서서는 누구보다 잘아실줄아는데요、

兪 우리들이 자랄적엔 무엇이 엇젯는지 잘모르고 지내왓지만 지금애들이야 학교에서배우는 지식뿐아니라 웬만한가정이면 어머니가 대강은 가르처주니까 자긔몸에 이려나는 변동이나 심리적변화까지도 미리부터 아러채이고 서두르는까닭에 퍽조와요、

記者 가정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성교육을 가르치십니까?

兪 가령 어느시기에 달하면유방이커지고 월경이 생긴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아히들에게 가르친다면 퍽붓그럽고 마음에 안되게 생각하기 쉬울일인고로 전에 아모개는 유방이 커지느라고 가슴에 알맹이 생기는것을 모르고 병원에갓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말비슷하게 하면 알어듯더군요 월경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르처주지요、저는 열다섯 돼술적에도 아무거를 모르다가 동긔방학에 집에도라오니까 어머니가 월경대 아홉개를 만드러 섬범과함께 보잭에 싸주시는데 어떠케 붓그러웟는지 몰나요。

記者 처녀가 어느시기에 이르면 팬스레붓그러워만하지요?

兪 그런데 우리딸은 어릴적보다 지금 훨신 덜붓그러워하드군요 녀고보에 다닐때야 제어듸서 손님보고 인사나햇겟습니까 그러드니 리화전문에 드러간뒤로는 집에서나 박게서나 누구를맛나든지 태연하지요、

記者 그외에는 전보다 변한것이 업습니까?

兪 전엔학교에서 금한곳도잇겟지만 무슨 집회가튼데도 잘가지안흐려고하드니만 요새와서는 활동사진구경을 어떠케자조가는지 모르겟서요 물론 문과인만큼 학교에서도 허락하고 자신도 그만한 정은다!판단할정도지만은——엿갯든전보다 달녀진것만은 사실이얘요、그리고 어릴적보다패딱패딱한재조가 덜한것갓해요、

記者 때를따라서 우울해한는가흥은 무슨 자신의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것갓지는 안습듸까?

兪 우리에는 본래 퍽 리지적이고 규률적이라 그런듯치는 조곰도 뵈지를 안어요

記者 처녀가 어느시기에 도달하면 연애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때에 선생은 방임하시렴니까 간섭하시렴니까

兪 절대간섭하지요 우리집안은 본래부터 방임하는일이 동업지요 나는 스물여섯살을 먹고 결혼해서도 아버님의 명령대로 햇스니까요、

記者、만약 이런사람이 조흐니 결혼시켜주시요 하는때에는어떠케하시겟습니까?

兪、어릴적부터 부모들의 뜻을 잘알기때문에 그런일은 종업스리라고 시일합니다

記者、대개 남성을알기전에 동성연애를 만히들 하게되지요?

兪 그러는가바요 만는 우리집에는 그런게 업습니다

김생의은혜가픔

童話 (一) 崔秉和

옛날 어느곳에 퍽 총명한임금님이 계시엿습니다。이임금님은 무슨일이든지 몰는다는것은 업섯습니다。누구나 묻는일두구나 보지못한곳에서 생긴일까지도마치 천리안(千里眼)으로바라보듯가티 바람결에 드른것가티 잘알고잇섯습니다。

그런데 이임금님에게는 이상야릇한 버릇이 잇섯습니다。그것은 날마다 점심밥을 잡수신뒤에 신하들이 물너간뒤에는 한사람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큰항아리하나를 가저고옵니다。그러면 임금님께서는 혼자서 그속에 잇는것을 잡수십니다。

그엽에서 시중드는 충성스러운 젊은신하까지도 그항아리속에 무엇이 드럿는지 도모지 알수가업섯습니다。

·이러케되여서 그큰항아리는오래동안 여러신하들에게 이상스러운 생각을가지게하엿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임금님 시중을드는 젊은신하가 그항아리속에 무엇이드럿는지 알고십어서 도모지 견될수가 업섯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잡수신뒤에 항아리를 제자리에 갓다노을때 살작 자기방으로 가지고 드러갓습니다。그리고 뚜끈거리는가슴을 가라치 진정식히다음에 뚜겅을여러보앗습니다。그랫드니 엇더켓습니까。그속에는 흰배암(白蛇)한마리가 드러잇섯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스러운일은 젊은신하가 그것을보자 갑작이 먹고십어서 참을수가 업섯습니다 그래서 배암을집어서 한동강을 이로잘너서 먹엇습니다。그랫드니 이상스럽게도 창박에잇든 새들과 숲속에잇든 암흘이 짓거리는 소리가 모다 아라듯게 되엿습니다。

바로 그날 황후께서는 제일 귀중한반지를 일어버리섯습니다 황후님께서는 틀님업시 이 젊은신하가 훔친것이라고 생각하시엿습니다。그래서 임금님은 이 젊은신하를 불너압해세우고 성나신 음성으로

『내일아츰까지 누가 훔치엿는지 찻저내지못하면 너를 죽여버릴터이다』하고 말슴하시엿습니다。이 무서운말슴을드른 젊은신하는 회엽에 걸녀서 혼자 울면서 임금압흘 물너갓습니다。

그리고 어떠케하면 반지를차저서 죽을것을 면하나 생각하고 느러니 뜰을 거러단엿습니다

바로그때 뜰압연못가에 오리가 떼로줌켜안저서 여러가지세상이야기를 하고잇섯습니다。젊은신하는 가는거름을 멈추고그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오날은 자미잇는구경을하엿다 오날은 생전처음 맛잇는 음식을먹엇다 하고 이러한 자랑을하고잇는데 그중의한마리가 몹시 슬픈듯이

『아아、나는 가슴이압어서 견될수가업다。악가 황후님계신방 들창아래 잇스랴니간 무엇이 떠러지기에 보앗드니 반지이드군아、그래 그것을 입에너코 물걱 삼키엿드니 고만 가슴이 빠개지는듯하고 압허서 죽겟다』하고 말하엿습니다。

이말을드른 젊은신하는 즉시 그오리의 목아지를 꽉 붓잡엇습니다。그리고 부억으로 뛰여가서 숙수에게

『이놈을 잡게 살이쪄서 맛이 잇슬테니』하고 말하엿습니다。

『참 그놈 무엇을 처먹고 살이젯습니까』하고 숙수는 저울로 무게를 달어보면서

『글쎄、살이 꽤 나가가는걸요。이러케 살이 찐놈이 잇는줄을 아러드면 진작잡을것을』하고 숙수는 오리 대가리를 잘너습니다。그리고 배를 갈ㄴ고보닛간 밥통(胃) 속에 과연 황후님의 귀중한반지가드러잇섯습니다。

그래서 젊은신하는 그것을 임금님에게 가지고가서 자기의몸을 깨긋이하엿습니다。임금님께서는 반지를 밧으시드니 엽는죄를 씨운것을 가엽시 생각하서고

『그대신 너에게 상급을 줄려나 네가가지고 십흔것을 말하여라』고 말슴하시엿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도라다니면서 세상형편을 살펴보겟는데 말한필과 돈을 얼마간 주시십시요』하고 말하엿습니다。

『그것뿐이냐、주고말고』하고 임금님께서는 말슴하시고 즉시 말과돈을 주시엿습니다。젊은신하는 도파말을 밧어가지고 그이튼날 먼-길을 떠낫습니다。

얼마안되여서 어느동리 큰연못을 지나가랴니깐 붕어 세마리가 도랑에 가처서 금방죽을듯이 신음하고 잇섯습니다。

『죽겟습니다。나좀 살려주십쇼 숨이 막히는듯합니다』여러분은 붕어가 무슨말을 햇슬가 하시겟지만 이 젊은신하의 귀에는 이러케 들렷습니다。그래서 즉시 말에서 내려서 그세마리붕어를 도랑에서 건저서 연못물에 고히 너어두엇습니다。

붕어들은 너무나 고마와서어려저리 뛰여 다니다가 세마리가 모다 물바그로 고개를 내밀면서

『이은혜는 결코 이저버리지안켓습니다。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꼭 갑겟습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

젊은신하는 또 말을타고 얼마를 가라니간 수많흔 개아미의한떼가 개아미잡아먹는 버러지에게 질려먹히게된것을 보앗습니다。이것을본 젊은신하는길을빼아서 그버러지를 질너죽엿습니다。이 재란을 면한 개아미의한떼는

『이은혜는 결코 이저버리지안켓습니다。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꼭 갑겟습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

암(癌)이란 엇던병

사십줄에 든분들은 특히주의해야합니다 (一)

城大病院松井外科 文仁柱

암(癌)이란병은악성(惡性)의신생물(新生物)즉 일종의혹이니 누구나 다무서운병인줄 생각하며 다시는 못고칠병인줄 알고잇습니다。사실상 현대의학이 발달하얏다고 하드래도 아즉 우리는 그근치법(根治法)을 듯지못하얏습니다。그러나 다만 그암이란병을 될수잇는대로 초기에 진단하야 병의발생한부분을 외과적으로 떼여버리는수밧게 도리가업습니다。그러하야 어느정도까지는 전치가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신분 잡지등에서흔이『……의암(癌)』이란말을 들수잇습니다

이것은 처리(處理)곤난한 일을 형용한뜻으로 생각합니다。

요사히 망국병(亡國病)이니무어니하고 말이만흔 결핵병(結核病)도 그로인하야 사망하는자가 우리조선에만하야도 한해에 멧만명이나 된다고하니 무섭지안타고할수업습니다。그러나 결핵병은 환자와의 접촉을 금한다던지 그박게 여러가지 위생상의주의로써 예방할수도 잇스며 또 약물료법、자연료법、특히적당한 일광욕으로써 완전한 치료의길을 차즐수가 업지안으며 사실상 결핵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완치되여 보통건강한사람과가티 생활에 종사하는 이를 만이보며 다른외국의통계를 보드라도 결핵병환자수는 년년히 줄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癌)이란병은 년년히 증가하야간다고하며 각국의 학자들은 그치료법의연구에 다대한 노력을하고 잇습니다。암으로인하야 사망하는수가 일본에만 하야도 한해에 오만명가령이나 된다고하나 사실상은 그이상 칠만명이나 되리라고합니다。우리조선에도 적어야 일만명 만으면 그이상의 희생자가 난다고할수잇습니다。그리고 결핵병은 이십세 전후의 청년남여에 만이발생하는것은 누구나 다-알고잇는사실이나 암이란병、은 소위 암년령(癌年齡)이잇스니 사십세이상의 인생에잇서 제일중요한 시긔(時期)에 만히 발생하니 남녀를물론하고 가정(家庭)에 잇서서는가정의중심인물이요 사회(社會)에나아가서는 또한 제일만히 활동할수잇슨시기에 그생명을 빼기게되니 그손실이야 말할수업시 크다할수잇겟습니다。

그러면 암이란병은 엇더한병이며 엇지하야 무서운가。

다른여러가지병은 대개 그발생의초기에 압호다든지 몸에열이난다든지하야 곳 병이난줄알게됨으로 일즉히적당한 처치를할수가잇스나 암이란병은 그발생의초기부터 압호지도 안코 열도업슴으로 주위의 가족은 물론이요 환자자신까지도 병이생긴줄 몰으고 지내며 차차 환자가 조금이상하다고생각하나 특별히병원으로가서 의사의 진찰을바들필요도업다고 생각하는중에 마참내 일정한 고장이생기게되여 비로소 의사를차즐것을때에는 벌서 병은전신에 진행되야 엇절수도업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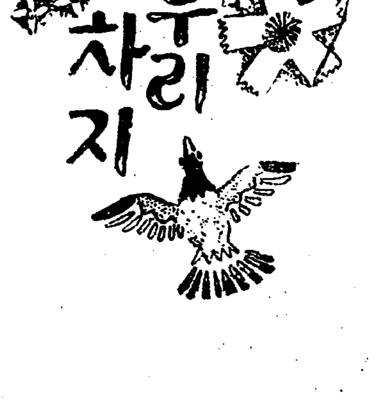
자태미의 세계선수권

입부다 입부다 녀자가입분것이무엇이진! 몸시입부면 세계적이될수잇고 그바람에 재수도열리게되는가봐요。

금년에 스물한살、이천륙백명의『모델』과『코-려스-껄』중에서뽑힌『매-디!·호프』양은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맵시를가진아 가집니다 그런데영국에서 맵시가 입분므로『-즈매리·에드레』양이 잇다는말을 듯고곡얼마나입부기에?나하고 한번겨누어볼까』하고 그야말로 세계선수권을엇기위하야『론돈』으로 건너갓습니다

(사진은『매-디·호프』양)

우리차지



아저씨 시골가시거든 할머니께 말슴전해주서요。

어머니 아버지 다안녕하시구요。저이들도 잘자란다구요。그리구 날따듯해지거든 할아버지와 두분이꼭 한번 다녀가시라고 엿주서요。우리가 모자쓰고 학교에다 니는것을 보시면 퍽 조와하시겟지요。

(글쓴사람 정낙영)

가정의학

경선결핵(頸腺結核)

問 一、금년이십칠세에 녀자이온데 금년사월부터 우연히 왼쪽목에 닭알만한것이 솟아잇드니 그후 비른편목에까지 참새알만한것이 생기여 요사이는여러개가 되엿나이다。연주창이라고도하는 사람도잇사오니 그것이면 수술을하여야합니까 수술에대한 료금이 얼마나들겟습니까 병명과 원인가정치료법을자세히 하교하야주십시요 (田舍에 一讀者)

二、저는 금년이십세의 미혼남자이온대 약오개월전부터 목에멍울이 여러군대로잇는대 부내 모병원에가서 진찰을한즉 결핵성림파선이라고하는데 지금까지도 만지면 아프지안습니다그런관계인지 열이올으며 답답하며 엇던때면 머리가아프고 잘때면 땀이나고 몸편중이납니다 림파선수술을 아니하고 나을양은 업는지요 그리고목에 증세잇는것은 무슨까닭이온지 하교하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市內 一讀者)

三、저는당년이십일세의 미혼남자인대 약륙개월전부터 목수처에 멍울이잇기에 모병원에 가서진찰을바든결과 결핵성림파선이라고합니다 조곰도압호지는안습니다 그런대 지네가 약이라고하야 지네를말려서 가루로하야 룸에의켜서 소금식먹음니다 지네는모슨 작용을하며、신체에 해롭지안은지잘알지못하와 답답하오니 잘말씀하여주시요 그리고무슨약을써야 완전히 나흘가요 (江華 愛讀生)

답 련주창(連珠瘡)이라고 속칭하는 결핵성경부림파선염 간단히 경선결핵(頸腺結核)이라고도합니다。원인은 물론 결핵이요 신체다른부분에 결핵성질환을 겸하는일이 만습니다。(문一)에 말씀하신 신열 두통 도한(盜汗)불면증등은 즉접 경선결핵의 증세가 아니오 폐에나혹은 다른 긔관에 결핵성질환이 잇다고 추측할수잇사오니 곳내과진찰이 필요합니다。

경선결핵의 치료도 자력에서는 어렵습니다 내복약 더욱히 (문三)에 말삼하신지네의 약리작용은 경험이업시 부정하기는 경솔합니다마는 근효과가잇슬가십지안습니다 경선결핵은전현수술이나『렌트겐』치료로 곳칠수잇습니다『렌트겐』치료는비용과시일이 만히걸니며 도발서희농한것이면은 무효하니까 보통은 수술을밧는것이 가장안전하고속합니다 수술비용은 병원에따라서 달으니까 말삼할수업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오는十日부터五日間 (午後二時부터 同四時半까지)

第二回中國料理講習會

講師는斯界의權威 鄭順媛 女史

◇會費 壹圓 (但材料費는各者가分擔해야합니다)

◇場所 西大門町一丁目三二京城女子基督靑年會館 (야주개전차정류장바로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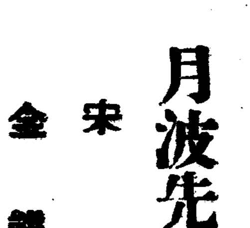
◇申請期間 三月九日까지主催側으로即接申請하십시요

主催 女子基督靑年會·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大好評 短時日에빗나는 料理솜씨

月波先生 【十三】

宋影 作 金熙超 畫



『허 이것참 괴가막혀서……회사로 두서가들어갓는데『날더러 악사움이라고 떠여달라고』-아이구 참 괘심한자식이잇습니까? 그러나 임이잘되느라고 그편지를또더본 서무게서긔가 나하고 사분이두터운지라 나에게슴그머니 둥지를햇습되다그려…그려나 압호로 주의를하라고……아니 이런괘심한여석이잇습니까 어느여석인줄 알엇스면 금방에 허리라도끈질려노코 십흡니다마는』

월파선생은 농담의 말을 듯으면서 머리에는 딴생각이 떠올낫다

『농민강좌』 패로구나! 하고 직감을하엿다

×

어느때인가 월파선생은 농민강좌를 구경을 갓섯다 물론들어간것이 아니요 어둑한 창바저서서 엿들어듯은것이다。박선생이 하도 이야기를 잘한다고를 야단들이니 어더케하나? 하는 호긔심에 잇슬렷든것이다

중간이되여서 처음에는 어떠한 이야기를햇는지는몰으나 첨판에는소작권이니 지주니 농업로동이니하는놀귀가씨여잇섯다 반쪽짓다가말어서 다 보히지는안호나 단(團)자도잇고 만국(萬國)도잇섯다

그중에는 반쪽만이 지여진『농민조합』도잇섯다 그리고 그때는『웰리암 텔-』이라는 서양영웅이야이를 의샹맛게 이야이를하고잇섯다

청중들은 손벽들을치고 웃고 씨씨거리고 야단들이낫다

월파선생도『무식한녀석들하고 입을삐죽이내밀고섯다가는 그만 나종에는 허-하고 입을버리고 웃엇다

×

김창봉의말을들자마자 이런생각이 떠올낫다 그리고 칠판에가 반쪽식 흐흔 한짝식 남은 모든글짜들이 또 다시보엿다 그러나 역시 입을담으럿다

김창봉은

『그런 건방진여석들이나요 필시 젊은여석의소위는분명한노릇이나 어듸증거를 잡을수가 잇서야죠 암만해도 주재소에다 부탁하는수 밧게업는데요 그리고 참 선생 우리 계말예요』

우리계라는것은 김창봉이 헌상이요야마모도가 총무인근검저축계다

김창봉 야마모도를 이 중심이 되여가지고 동석군의 픔삭중에서 오전식떠여서 공동조합에다 의무저금을해준다

그리고 일석한때 담배와 막걸리주는대신으로 그 대전(代錢)을 계의 고금으로 되려노케하고 또 그돈을 식리를 해서 봄이면 비료가든것을 공동구입도하게한다

이래서 이동리가운데에는 새말뚝이 스케되고 농가는 군으로부터『농가』의상장까지 밧게되엿다 월파선생은

『공동조합모범부락』이란

『네、계가 엇더케되엿나요』

『아니 계원여석들가운데에 젊은여석들이 요새와서는 계를그만두자거니 저금이소용업느니 하면서 말성을부린답니다 그중에 봉길이여석이 더해요 그런데 선생 그녀석도 농민강좌에단기기전에는 여간 순박한여석이 아니엿는데요오죽해 그놈 별명이 소 이엿든가요 선생 대관절 농민강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줍니까? 박선생은 얌전한 젊은 교사인지라 소문들으면 상식도들려주고 부업에대한지도도 해준다는데……』

하면서 알고도 못는지 정말의아해서 그러는지 월파선생은은근히 처다본다

월파선생은『칭』하고 웃엇다 가슴속에서 모락모락타는 증오의불길이 고개를들엇다

그러나 역시 아모말도 안햇다

『그야 박선생이 그러케 건방저 지라고하지는안헛겟죠 허……허여간 세상이 말짜니가요 허……』

군자다웁게 화하웃음을웃엇다

비록 박선생이 미우나 절대로 훼방하지는안흐려고햇다 얼마아니잇스면 책보싸고 쪼겨갈 가련한 청년이니 터-한 훼방은 녕우나 잔인하며 뿐만아니라 남의흉을들어내거나 남못되는것을 조아하는 것이 소인의할 짓이라는것을 노인다웁게 알고잇는까닭이다

아이들을빼기고 친구를뺏기고 수입이적어지고 얼굴이떠러진 모든 개인적원한은 잠간동안 그의 군자지도에게눌리엿다

그의맘을 빌어말하면 도심(道心)이 인욕(人慾)을 눌넛든것이다

開成社 【三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後一時半 四時十分 六時半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에드와-드·스차렌드 監督 에드와-드·아-놀드氏主演 따이아몬드·짐 張翰의主人公짐의人間記錄、十九世紀末、奇行과散財로一世를驚動식히든거리의寡婦의人間記錄 ◆MGN特作映畫 !유社名作NOI 리차-드·보레스라뷔스키-監督 로바-트·몬드고메리-主演 당지에돈스 大冠非常線 與論과스릴의推演、보레스라뷔스키-의逸品 ◆日活現代劇映 山路ふみ子 わたしがお嫁に行つたなら 次週封切 罪夢、어느밤의特種事件、名探偵、三銃士、湖畔의카리돈、那海、靑果實、曖昧官憲、美尼、東道、騎兵、文、한國女、再送、蒙페이最後의날、등푸햇、純白 映畫殿堂 全鮮第一 電光 九五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安くて面白い 三月四日ヨリ八日迄五日間均格 大公開 大人二十錢 小學生十錢 晝十二時半 夜六時半始 上映順 現代劇 旅の踊り子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祭囃子金子市 佐久間妙子 水島道太郎 主演 大都超特作 三枝源次郎 監督 時代劇 阿部九州男 木下雙葉 久野あかね 松村光夫 主演 監督は白井戰太郎 大都超大作品 さらば海軍兵學校 四堂堂封切るパラマウント本年度超大作の隨一感銘と昂奮の渦 アレキサンダー·ホール監督 リチャード·アーレン ガイ·スタンディング サー·ガイ·スタンディング ロザリンド·ケイス トム·ブラウン 助演 主演 昔日の武勳を語る『コングレス號』が今標的艦として新鋭戰艦の前にある艦と共に年老ひし退役の老艦長の哀傷今は想出の正裝にて艦と最後を共にするああ武人の此の涙あり (さらば海軍兵學校上映時間) 晝三時ヨリ 夜九時より

中央館 電本二五四番 三月二日부터 晝間 一時부터 夜間 七時부터 靑春座第三回公演 驚異의輿望! 人氣! 湖南線一帶를휩쓸어 시차저든곳곳마다聲援과歡待의물모라친 靑春座가朝鮮에잇서 最高峰의地位를占據케하엿다 新版 長恨夢 四幕六場 崔獨鵑 脚色 李守一……沈影 沈順愛……車紅女 金重培……徐月影 白樂觀……黃澈 崔萬鏡……池京順 ●朴齊行·金仙草·南宮仙 出演 李雲芳作 失樂園 二幕 明玉……池京順 壽童……沈影 炳植……徐月影 蓮月……金仙草 總角……朴齊行 主母……南宮仙 ●東紅女 金東奎 卜元奎 出演 九月山人作 喜劇 急性戀愛病 一幕 女 雨情……文士 沈影 金榮植(그의친구)黃澈 吳善慶(文學少女)池京順 林淑貞(榮植의妻)南宮仙 朴齊行·金仙草 出演

東洋劇場 竹添町一ノ 電光3二三四番 六日特別大公開(五日間) 連日大入滿員御禮!再び諸彦に捧ぐる名篇週間!矢繼早に三大巨篇を普通料金に公開! お姫樣道中記 傷だらけのお秋 三日月仁義 ひるの部 よるの部 大人四十錢 學生三十錢 小人二十錢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 原作 山内英三 監督 野子央三 オールサウンド お姫樣道中記 毛利峰子、松本泰輔、田村邦男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泉作品 原作 三好十郎先生 監督 勝浦仙太郎 オールサウンド 傷だらけのお秋 伏見直江、河津清三郎、山縣直代、南部章三、御影公子、大井正夫、菅井一郎助演 主演 モリモト映畫社提供 寬プロ超特級時代劇 原作 村上浪六 監督 後藤岱山 說明オール·トーキー 三日月仁義 嵐寬壽郎大熱演 ポリドール人氣歌手東海林太郎主演歌吹込 關東說明界の重鎭 發聲 渡邊浩堂 鈴木梅龍外一黨 永樂町 電本三五二 中央館

隨筆漫筆 ②

日 【漢籍雜考】(上)

萬海

淮子許愼은『日者火精』이라하고 春秋에는『日者陽德之表』라하고 說文에는『日者實也 大陽之精也』라하고 山海經에는『鍾山之神名曰燭陰 視爲晝 瞑爲夜 吹爲冬 呼爲夏 身長千里 人面蛇身赤色』이라 하얏스니 이것은 日은 燭陰의目이라는 말이다 淮南子에『堯時 十日幷出 草木焦枯 堯命羿 仰射十日中九烏 皆死墮羽翼』이라하고 六帖에『日中 有陽烏 三足』이라 하얏스니 이로보면 堯時에 ○가 射殺한 것도 亦是 三足烏오 至今에 남어잇는 太陽은 그때에 다행히 禍를免한것으로 그중에도 三足烏가 잇는모양이다 孔光傳에『日者 衆陽之宗 人君之表 至尊之象』이라 하얏다 淮南子에『日出暘谷 入於咸池、拂於扶桑 是爲朏明 發於扶桑之上 爰是將行 是爲朏明 至於衡陽 是爲禺中 對於昆吾 是爲正中 經於泉隅 是爲高春 薄於虞泉 是爲黃昏 淪於蒙谷 是爲定昏 日西垂 景在樹端 謂之桑楡』라하얏다 桑楡라는것은 至今도 흔히쓰는것인대 淮南子에는 桑楡는 東方之野라 하얏고 山海經에는 天荒之中 暘谷上 有扶桑木이라하얏다 廣雅에 日名耀靈 一名朱明 一名大明 亦名陽烏 日御曰羲和 라하얏다 晨旲에 日光曰景 日影曰晷 日氣曰晛 日初曰旭 日昕曰晞 日溫曰煦 在午曰亭 在未曰昳 日晚曰旰 日將落 日薄暮 日西落 光返照於東 謂之反景倒景이라하고 又日已出日朝陽 日暮日夕陽 春日暖日 夏日畏日 秋日愛日 冬日愛日이라 하얏다 列子에 잇는말이다 孔子가 東遊할새 兩小兒가 辯爭하는것을 보앗다 그연고를 무른대 一兒는 日出時가 가까웁고 日中時가 멀다하고 一兒는 日出時가 멀고 日中時가 가까웁다 하는데 그理由로는 前者는 日出時에는 大如車蓋하고 日中時에는 大如盤盂하니 近者는 大하고 遠者는 小한것이 아니냐하고 後者는 日이 初出時에는 蒼蒼凉凉하다가 日中時에는 더워지니 近者熱하고 遠者凉한것이 아니냐 하는지라 孔子가能히 決定하지못하매 兩兒가 웃어가로되 누가 너를 多智者라고 하든고?하얏다

學藝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八)

洪起文

中國文獻에 對한 丹齋의 빗나는 解釋은 오죽 이뿐에 끄치는것이아니라 그 著作을 通하야 곳곳에 허터 저 잇다。그中의 重要한것으로 몃가지를 다시 들어 보인다면 아래와 갓다。

(一)管子에는 『八千里之發朝鮮』이니『發朝鮮不朝』니『發朝鮮之文皮』니等의 말이 잇고

◇…史 記와 大戴禮에는『發息愼』이란 말이 잇다。이 發字는 만흔 境遇에 文理가 通치안하건만은 아모도 그 字義를 解釋한 사람은 업다。그런데 丹齋만이그 發字에 對한 疑心을 품어 가지고 새로운 解釋을 試驗한結果 發朝鮮 發息愼은 곳한個의 固有名詞라고 하얏다。그의 解釋을 기다리어서 비로소『八千里之發朝鮮』等 만흔 不通의 文句를 通케 되것이다(朝鮮史硏究艸第三七頁參照)

(二)漢書地理志遼東郡險瀆의 註에『應劭曰朝鮮王滿都也依水險故曰險瀆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此自是險瀆也師古曰瓚說是也』의句가 잇다。先儒들은 이 此告是險瀆은 應說에 對한 是認, 또師古는 다서 瓚說에 對한 是認으로 보아 三人의 말이 一致한것처럼 녀기엇다。그러나 丹齋는 거긔 對한 疑心을 가지고 새로운

◇…解 釋을 試驗한結果 이『王險城은 樂浪郡浿水東에 잇는것으로 遼東의 險瀆은 그저 제대로 또한 險瀆 이라고 말하야 應劭의말에反對하매 師古가 應劭를 버리고 瓚을 조츤이 아니냐고、하얏다。險 에 對한 이 註도 그의解釋을 기다리어서만 비로소 그 本義를엇게 되것이다。(朝鮮史硏究草第一二頁參照)

(三)丹齋의 말을 드르면『三國志高句麗傳에『王頎別遣將追討宮稱其東界問其耆老海東復有人否……說常一布衣從海中出……兩袖長三尺……有一人項中復有面』等文句가잇스니 王頎는 曹魏때의 將帥요 宮은 東川王位宮인데 그後 范曄이後漢書를지을때 後漢以後의 사람王頎나 東川王을 쓰기 어려우니까 王頎以下十二字를 떼버리고 高句麗耆老의 自言으로맨들어 버렷다고한다。三國志에對照해 보아

◇…後 漢書에서 耆老自言一으로 맨든것이 一種의 속임수라는것은 容易히 알수잇는일이언만 丹齋以前그와가치 說破해논사람을 듯지 못 하얏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金富軾의 三國史記에 關하야도 만흔 校正을 行하얏다。거긔 對하야는 極度의 憎惡를 禁치 못하는터로 가끔가끔 罵詞의 激越해짐조차 發치 못하나 그러타고 그 校正의 값을 低下시키는것은 아니다。本來 三國史記란 在來式史記에서도 가장 不備한 著作으로 著者의 文識을 疑心할 程度의 誤謬까지적지 안타。丹齋도 말슴한바어니와 宋書의『陳不欲使弘南來』의 陳만을 王으로 고치어 宋字가 웃음게 되는等의 例가 만타(朝鮮史硏究草第十八張參照)勿論 三國史記에 對한 校正은 이미先儒들로부터 시작되야 온것으로 決코 丹齋의새 한

◇…開 拓이 아니다。그點만은 先儒들에 對한 丹齋의 敵意를 저바릴까 分明히 하야둔다。(上同參照)그러나 그 先儒들과 함께 丹齋의 功勞도 이저서는 안된다。先儒들에 向한 丹齋의 罵倒를 우리는 다시 한번 丹齋께 向하야 보내지 안 할수 업다。단지 東西兩字相換에 對한 丹齋의 考證만은 좀더 考究를 要하는 問題다。그것은 丹齋가 보여준 證據만으로 遽然히 追從키 어렵지 안 할까 보이는까닭이다。何如튼 朝鮮歷史學界에 잇서丹齋는 가장 큰 恩人이 아닌가 先驅者로서도 그러코 史料考證學者로서도 그러치 안한가?그를 일허버리엇다는 것이 우리의얼마만한 損失인가?朝鮮의

◇…學 界야말로 거듭거듭 不運한것이 아닌가 그러나 丹齋여 편안하라 당신이끼치어준 그 遺產을 正當히 繼承해다가 眞正한 朝鮮史를完成하야서 당신의業績을 한층더빗내날이 잇스오리다。丹齋學說에 對하야말하고 시픈바는 오죽 이것만이 아니나 紙面關係로 여긔서 끄치지 아니치 못한다。이 글을 쓰는 중간 直接間接으로 先輩友人의 만흔 忠告는 感謝히 녀기나 序論에 이미 前提한바와가티 是非의 紛糾함을 이미 覺悟한터로 이붓을 中斷시키지 못한데對하야는 未安한 마음까지 한께 禁치 못한다。(完)

訂正=前回最終段 不滿足의의선은 四乃至둘로 訂正되야다

멕시코에선 自由의巨像

『自由의像』이라면 누구나 곳『뉴-욕』港頭에서잇는 그것을 想像하겟지마는 속좁은 그隣國인『멕시코』에 새로히『自由의像』이 섯는데 이것은 그크기가『뉴-욕』의 그것을 훨신 더凌駕한다고한다。이巨像의 建立되經緯는『멕시코』를 西班牙의 支配下에서 獨立식힌『쭈-제·마리아·모레로스』를 記念하는것으로서『맛쓰큐아로』湖中의 小島에 屹立하여잇다。그크기에잇서서도 世界에 類例가드물지마는 더구나『데자인』에는 近代的樣式이 석겨서 매우 壯大纖麗하다고한다。

時調 書帖 (六十四)

겨울날 다사한볏을 님에게 쪼이고저
봄미나리 살진맛을 님에게드리고저
님께야 무엇이업스랴만 내못니저하노라
(失名氏)

漢詩

春雪—押風

相崗考選 選外佳作之八

仁川府栗木里 林友石

六花片片落番風
在候云乖造化工
梅朶難消難妒白
鵑喉忽凍勒啼紅
末敷地面元來海
纔到簷牙半已融
一霽還原終是雨
潤疏滅麥歉切問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 ⑦

韓曉

그것은 흔히 世界觀及 政治와 文學의 分離를 拒否하고그것의 辯證法的 統一에 잇서서 現實의 외의(眞理)를 探求함으로써 푸로레타리아-트의 諸事業에 果敢히 參加하기에 意識的으로 努力하는自由!그러하야 現實의 本質的側面과 그의

中 軸인 歷史的傾向 乃至 勝利의 過程에잇는 典型的形象의 眞實한 描寫를 內包하는 正當한 創作方法 소시알리스틕·리알리슴의 支持에對한自由! 이러한것이 우리들의 自由의 全體인것이다。

그럼으로 逃避的 文學層이 呼하고잇는 創造의 自由란 虛僞와僞善의 假裝된 自由의 抽象以外에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이러한 卑怯漢들의『自由의創造』에對한 우리들의 反駁의意義를 『우리들은社會主義者들이 이僞善을 暴露하고 虛僞의看板을剝奪하는것은 超階段的文學(그것은 社會主義超階段的社會에잇서서만 可能할것이다)

藝 術(그것은 超階段的文學을 爲함이아니고 그것은 僞善으로 自由로운 實際로는 뿌르조아지-와 關係를가지고잇는 文學에다 정말 自由로운 公然한 푸로레타리아-트에 結付되여잇는 文學을 對立시키기爲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一部의理論的 分子들의 認叫가如何히 誇張된 妄想인가함을 容易히 豫測할수잇스며 또한世界觀과 政治에서逸脫된 如何한文學의 自由도 容認되지안는다는原則을 明確히理解할수가잇는것이다 오직文學에 잇서서의自由란!『人類의××的思想의 最後의 言語를 社會主義的푸로레타리아-트의 산(生) 勞働과 經驗에依하야 豊富히하는 自由,그리고 過去의 經驗과 現在의 經驗과의사이의 不斷한 相互作用을 創造하는自由 일따름이다』(레-닌) 藝術家의 活動과 藝術家의創造한 形象은 그의意識을 通하야 屈折되는 現實의 一定한說明, 傳統, 現實의 藝術形式의 言語에의 移植인것이다 그럼으로 無原則한『創造의自由』라는 聖스러운 容號를 文學의 方法과 世界觀과의 機械的分離及 政治와 文學과의 離脫의 武器로닙게揭함으로써 現實에對한 이러한 藝術的機能을 抹殺하는것은 ...이다

그러나 世界觀과 政治는 決코 抽象的인 思辨的觀念의 圖式은 아닌것이다。그것은 現實의 一定한 反映인 同時에 現實의 一定한說明인것이다。그럼으로 이러한 現實의 反映形態로서의 世界觀과政治를藝術과分離시킨다는것은 實로愚者의 頭腦가아니고서는 想像치못할 妄想인것이다

그리고 前者에서말한바와가티 方法과 世界觀의 同一視하는機械的形式主義的傾向도 共히 愚者의妄想이 아니면아니되는것이다 그러면 우리가말하는 方法과 世界觀과의 辯證法的統一이란果然어떠한것인가? 『藝術的形象은 一定한現實의反映이다』(킬포-친) 그러나 藝術은 特定의社會的階級的傾向을가진藝術家의 意識을通하야 再現된

形 象으로서의 現實의反映인것이다。그럼으로 藝術家의 一定한社會的階級的傾向을가진 世界觀은 客觀的世界에 對한 優秀한實踐的 科學的認識을通한 創造의豊富性을 그의形象의우에 露顯시키는 巨大한作用을 가지고잇는것이다 이것을分別업시 方法과 分離시키는것은 形象을完全히 無內容性과無思想性에 結付시키는 至極히 無謀한妄動인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抽象的으로方法과 同一視하는것은 現實을反映하는 特殊的形式으로서의 藝術創作의本質을 抹殺하는 一種象徵主義的思想인것이다。

事實上에잇서서 우리는 過去의 優秀한 作家들의 形象을通하야 方法과世界觀과의 矛盾을 나타내 보아온것이다 우리들에게잇서서 過去의作品을 評價하는境遇의 푸로레타리아-트의 [illegible] 即 作家의 世界觀의 [illegible]를 暴露하지못하고 自己自身의 主觀的信念을가지고 一律的으로 뿌르조아지-의 藝術作品의 認識的意義의 高度의 藝術的水準을 抹殺하고 뿌르조藝術家의創造物이라는 오직한가지理由만을 가지고 無論理的으로 그것을否定하는

偏 向을冷却히 揭棄하여야 할것이라함은 벌서몃번이나 論議된바가아니엿든가? 그러나 우리가여가서 理解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은 過去의優秀한 뿌르조아作家들의 形象의 우에 顯現된 方法과世界觀과의 矛盾에서 胚胎되不可避的인特徵에對한 階級的評價의 基準이니 果然 그矛盾의 本格的原因은어듸에잇는것인가 하는것이다。例를들면 엥겔스가 指摘한바와가티 발작크의藝術이 作家가 同情하고잇는 階級의人間들에게 對한가장辛辣한 暴露의 武器엿스며 그들의瓦解될수업는 崩壞의運命에對한 끈임업는 悲歌엿다는것은 너무나 有名한事實의 原因은果然那邊에잇는가? 그것은 藝術家의 形象이 深刻히現實에 立脚되여 그의眞實性의 우에서創造되여질때 現實에 對한正當한 科學的認識의 우에서의 確如性업는 歪曲된 作家의 世界觀은 二形象의 우에 何等의影響도傾注할수업는 한개의無用物이되여버리는까닭이다 여기서 스스로히 方法과世界觀과의 矛盾이生起[illegible]

[illegible]論되지안으면 아니되는 同時에 現實에 對한藝術의特殊한 作用이 包含되여잇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歪曲된

世 界觀은 藝術作品의基礎에노이면 그것은 作品의 美的價値가 그것때문에 不可避的으로 低下되는內部的矛盾을 藝術作品의속에 內包시키는것이다』라고 말한 도-레하-노프의말은 이問題에 關하야正當한 것이라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自然과 社會의歷史的發展의 合法則性을 正當히科學的으로 反映하는作家의 世界觀 即辯證法唯物論의 世界觀은 決코作家의現實에對한 眞摯한創造過程과 矛盾되지 안흘뿐아니라 도리어 거기에科學的인 正當한 方法을指令할수잇는 巨大한影響을波及하는것이다

이것이 一切의先行的의 階級에對하야 그의歷史的勝利를 자랑할수잇는 푸로레타리아階級의 世界觀만이가지고잇는 最大의光榮이며 또한 偉大한 認識的、方法的힘(力)인것이다

그리고『意識的인 歷史的內容이며 巨大한思想的深度와 쉑스피어-的生氣潑溂함과 行動의豊富性과의 完全한結合은 아마未來에잇서서만 達成될것이다』라고말한 엥겔스의말은 우리들의 世代에對한

巨 大한 期待의 科學的豫言이 아니엿든가? 그리하야 眞理는 單純을 要求하고 虛僞는 複雜을 要求하나니 이單純과 複雜의 交代되는 世代의 歷史를 우리는 우리들의 一切의 自由로운 形象의우에 具體化할수잇는 가장 光輝잇는 젊은世代의 文學者인것을 엇지 一時라도 忘却할수가 잇슬것인가?(完)

(流線型을檢討) 美國의 某自動車會社에서는『다-비-』工場에다 從來 飛行機에만 使用하든 風洞을 만들고서 實物과갓흔 模型自動車를 擴大하야 理論的으로 硏究中이다。

戲曲 春香傳 (完)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卞學道 그게 무슨 고이한 대답이냐? 네가 기시에 아희들끼리 만나서 살고들기가리야튼맛에 그러하나 보다마는 하룹비둘기가 재를 넘느냐。그러하기로 이런 서룸도 보는구나。너 그려지 말고 밧비 나가 소세하고 방수차로 대령하라! 젊은애들의사랑도 조커니와 우리가튼 늙은이의 사랑도 과히 납부지 안느니라。우거지스국에 쇠옹도리뼈 너흔듯한 궁심한 맛을 보면 그무궁한 자미에 너깜작반하리라。또 네가 수청를면 내일부터관청은 네집 찬ㅅ장이오 운향ㅅ고 목전ㅅ고는 네 곡간이오 일봉부장이 다 네주장이라 이런 깨판이 또 어듸 잇느냐?

春香 못합니다。운향ㅅ고도 내사 실코 목전ㅅ고도 내사 실ㅅ송

卞學道 요것아 네마음은 그러하나 리도령 어린아이 장가들고 급제하면 천리타향 잡시작란 네생각할수잇냥。가련한 네신세가 꼿가지에 서리오 약한풀에 띄끌이라 그아니 불상하냐。네가 유식하다하니 사긔(史記)로 이르리라 녯날 예양(豫讓)이는 재초부(再醮婦)의 수절이라 네가 나를 위해 수절하면 예양과 일반이니 의복단장 곱게하고 오늘부터 수청하랑。

春香 소녀의 먹은마음 사ㅅ도님과 다르외다。마힐 올라가신 도령님이 무신하야 안차즈면 소녀는 반첩여(班婕妤)의 본을바더 옥창형영(玉窓螢影) 직히다가 이몸이 죽사오면 황릉묘(黃陵廟)를 차저가서 이비혼령(二妃魂靈)뫼시옵고 반죽지(班竹枝)점은배에 놀아볼까 하옵는대 재초수절(再醮守節)하란말슴 소녀게는 당치안소

卞學道 (어이업서 大笑한다)허허……기생년이 무슨 수절이냐? 기생년 수절한다말놈내아에서 드르시면 대부인은 기절요절하겟구나。허허허……(올르며) 요년! 별종절놈다하야、관장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 간절한거지? 리가놈올라간후에 독숙공방 할수잇나? 옹당 애부잇슬터이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이 죽일년! 바로 대라!

春香 저는 창녀가 아니외다。

卞學道 개색기는 개고, 창녀의 색기는 창녀지 무어냐?

春香 그러면 창녀는 수절도 못하란 법이오?

卞學道 이 요망스런년가트니! 외마듸로、대답하라! 수청 할터이냐?! 안할터이냐?!

春香 저를 죽이오면 죽사옵고 살리시면 살터이니 천분대로 하소서。그러치만 백번죽사와도 훼절만는 못하겟소。

卞學道 못해 요년! (春香한테 덤비려한다)

春香 (食令避하며)……관장드위 민부모(爲民父母)어늘 유부녀를 억탈하랴는것은 무슨법이옹 이것이 국록지신의 할노릇이오?

卞學道 에키! 망할년! (野獸처럼 春香한테 덤빈다) (春香쫏겨서 上房으로避한다。上房에서 春香의 외치는 고함소리!

이윽고 春香이 上房에서 쓰러질듯 나온다。머리가 풀리고 옷이 혹터젓다。卞學道는 野慾에 질린 얼굴로 따라나온다。숨결만 씩은거린다)

春香 (대청에쓰러저서운다)초록(草綠)은 동색이오 가재도게편이라터니 양반은 다 이럿소? 에그 분해라……에그 분해……

卞學道 (화가나서)여보아라!

通引 예이

卞學道 이년 밥비 잡아 내라!

通引 예이 급창!

級唱 예-이

通引 춘향 잡아내라!

級唱 (一層노픈소리로)에 이 사령! (使令들 우르루 달려 나온다)

使令 예-이

級唱 춘향 잡아나리랍신다。

使令 예-이 (使令들 벌떼가티 달려들어 춘향의머리채를 휘휘친친 걷처 쥐고 동댕이처 게하에 끄러내린後 크다란 형틀우에 춘향이를 덩그러케 올려매고 使令들 뒤스거틍처 좌우로 쭉 갈라서며)

使令 춘향이 대령하엿소。

卞學道 형리 거기잇느냐?

刑吏 예-이형리 대령하엿소 (刑吏나와 읍한다)

卞學道 저년을 따려 즉읍터이니 다짐쓰고 가즌매 대령하라!

刑吏 예-이

南行詩抄 【四】 三千浦

白石

졸레졸레 도야지새끼들이간다
귀밋이 재릿재릿하니 볏이 담복 따사로운거리다
재스덤이에 까치올으고 아이올으고 아지랑이올으고
해바라기 하기조흔 벼스곡간마당에
벼스집가티 누우란 사람들이 둘러서서
어늬눈오신날 눈을츠고 생긴듯한 말다툼소리도 누우라니
소는 기르매지고 조은다
아 모도들 따사로히 가난하니

危機의自然科學 —그超克의길은무엇인가?— ⑤

金成圭

…繼續하야 幾多의假說이 試行되엿스나 陽電氣를帶한 原子核이 實驗的으로 發見된에、結局『보-르』(一九一三年)의 比較的完全한 原子構造論이 量子假說을利用하야 巧妙히 構成되엿다。그에依하면 原子는 原子核을中心으로하고 電子가 廻轉하는 小宇宙的太陽系와 同一하다는것이다。여기서 注目할것은 電子軌道의 安定性을『보-르』은力學的이 아니고 量子論的으로決定하얏다는것이다。

×

그러면 量子論이란 都大體무엇인가?『프랑크』는(一九〇〇年)完全黑體의輻射스펙틀에잇서서의 에넬기-

分布 의 硏究에當하야 調和振動을하는 粒子의 에넬기-는『量子』라하는 엇더한單位量의 整數倍로써만 반드시 現出함을 大膽하게 假定하얏다。($E=h\nu$. ν는粒子의 振動數 h는『프랑크常數』)。그가假定한 振動體의輻射機構로부터 에넬기-는 不連續的으로 放出된다는 것이다。모든 物理現象의過程이 連續的이라는것은 物理學者의 科學的常識이다。『프랑크』의不連續性의導入은 物理學의震動이아니고무엇인가? 光의波動說과 光學說第一義이 電磁波로서 說明되고잇던 當時의物理學의水準으로서는 到底히 想像도못할 異端的인 假說이엇다。『아인스타인』(一九〇五年)이光量子論을 提唱함에 至하야 困難은 於是乎波動說을 나리키기 始作하얏다『光量子論』에 依하면光의 에넬기-는 恒常 一定의量子로부터 構成되고 波動으로서 傳播되는 것이 아니고 量子로서 交互로進行한다는것이다『컴프톤』(一九二三年)은物質에 X線을 射投하야 X線의量子가 粒子的으로 物質內의電子와 衝突하고 그結果 에넬기-及運動量 保存의 法則의 成立을 證明으로서『光量子論』의基礎를 確乎케하엿다(『컴프톤効果』)이리하야 幾多의物理的現象이 이假說로부터 自然的으로 說明됨이 漸漸明白되엿다

『파블로프』教授의 學說과略歷 ③

李鶴松

食道遮斷이라는것은 食道의 中間을 遮斷하여 飮食物이 胃안에 드러가지못하게하며 同時에 食道에 造設한 瘻管으로 그飮食이 外界로 나오게한裝置이다 그럼으로 그런 食道遮斷을 造設한 개(犬)에게 食物을 주더라도 食物이 胃까지到達하지안코 다만 精神的影響만 주게된다 그리케 硏究한結果 食物이 直接胃에 드러가지안터라도 美味의 食物을 보거나 或은 口腔이나 食道에 食物이 드러가면 벌서 胃內에는 胃液이 分泌된다는것을 確實히 證明하엿다 또이와反對로 精神에 惡現狀 即怒하거나 憎心하거나하면 胃液이 分泌되지 안는것을 證明하엿다 吾人이 日常經驗한것은 不味한때에 消化가조치못한것이다 이것은『파블로프』先生께서 證明한 精神의 好狀態는 胃液分泌을 旺盛케하고 惡狀態는 胃液分泌이 不良한까닭이다。그러고 한거름나아가 이精神의 影響을 傳達하는 神經이 迷走神經인것도 證明하엿다。그다음에 胃液分泌는 먹은食物의 種類에따라 다르다는것을 發見하엿다 例를들면 肉類를먹으면 胃液分泌가 旺盛하게되고 脂肪을만히먹으면 胃液分泌가低減되는것은 알엇다 또有名한것은 胃는精神的影響을바더 胃液分泌가잘되고 안되는것을 發見하는同時에 그보다도 더큰 힘이胃自身에게잇는것을 發見하엿다 即神經을 全然切斷할지라도 胃液을 잘分泌하는것을 알게되엿다 다시말하면 胃는 神經의支配를안밧고도 獨立的으로도 넉넉히 胃液을分泌할 能力이잇다는것이다 이硏究의 發表는 學界에 非常한衝動을주고 學者의興味의 焦點이되엿다。모든 議論은 神經의 支配를바더야만 完全한機能을 發揮한다는것으로 認定되든 學界에 對하야 이러한 業績에對한報酬로 一九〇四年에 第四回『노-벨』醫學賞을 밧게되엿다。그後 多數學者의 希望에 依하여 一九一九年『아메리카』『보스톤』에서開催된 萬國生理學會席上에서 이胃自動分泌(Automatic secretion)에 對하야 特別講演이잇섯다 이때『파블노프』先生께서 假定할때에 만일에 이學說이 엇지엇다고 하면 우리의 生命을 健全하게하는 貴重한 胃의生理는 多大한 未知現狀으로 깁히迷宮속에 잠겨잇슬것이다。이것을 生覺하면 우리後進學徒의 머리는自然수그러지지안흘수업다 先生의不朽의功績은 기리 우리人類가 世上에빗날것이다。

讀者文壇

◀小說과詩를硏究創作하시는분들中에 發表機關이不足하여 發表치못하는분들 또한文學에뜻을두고잇는이들이라도 서로討論을못하고 헤매는분들은 서로通信으로나마 討論하여보려는분들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요
平北龍川郡東下面法興里 鶴岡山人

◀『쉐페-드』『飼育專門家』에게 뭇습니다。本人이 요사이『쉐페-드』『한머리를사다가 기르는데 밟은편귀가 약한지餘를 찌저저서 合縫이되긴되엿스나 빼죽일어서야만될귀가 축느러저서 보기가실습니다。이것을 어떠게일어나게할 方法이업슬가요。本欄을通하여 親切히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禹나절로

◀本人은 今年十九歲少年이온대 十三歲때부터 演劇을 硏究하엿는대 演劇俳優가되고저하오니 엇던사람에게 敎授를바더야합니가 詳細한것을 下敎하야주십시요
漆川 狂劇生

◀生은今年二十四歲의、男子인대 朝鮮映畵界를爲하야 獻身的活動을하고저하오니 엇더한映畵社에서든지 저를불러주실수업습니까 不足하지만은 映畵도硏究하여보고 또脚本도 써보앗스며 俳優表情도硏究하야 至今은엇더한映畵에出演하여도 他人에게지지안흘만한自身이잇습니다 저의住所로서 本紙上으로 問議하야주시면感謝萬萬이로소이다
全南玉果 林景灼

◀當年二十二歲된 男兒이온데 貧寒한 家庭에 태여나서 普校를卒業한後 五年前부터 活版文選工으로 勞働하는者이오나 專檢突破를 目標로 講義錄으로獨學하야왓스나 獨學으로서는 滿足치못할뿐中 距離關係도 有하야 職技나마 印刷技術이라도 精密히修得하야 夜學機關이라도 充實한 京城을가서 技術을 本삼아 求職하야 其目的을 達成하고저 窮究中이오나 賢明하신 社會先生님目的達成의 조혼方途가 업겟습니까 求職處를下敎하야주심을바라나이다
(浦項合同印刷所 李鍾建)

新刊紹介

▲酒 三月號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朝鮮の朝鮮 三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錢

▲靈光 創刊三週年記念號 奉天西塔大街西塔敎會內 靈光社發行 振替奉天八四八番 定價一部五錢

▲新家庭 三月號 卒業生特輯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發行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ピタカ 三月號 東京市本鄕區本鄕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發行 振替東京五一六八四番 定價二十錢

▲新東亞 三月號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發行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時光 三月號 京城府東大門外淸涼里 時光社發行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黃昏 【30】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새사장 (二)

장주임은 제가 가지고 들어온 기계목록을 척척 뒤지다가
「이게 순전히 전동력(電動力)만 사용하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하고 복잡한 도면을 가르치며 그기계의 성능(性能)에 대하야 설명한다.
사장은 도면을 드려다보며
「하아, 하아」하는 감탄을 련발하다가 여송연 끗을 따고 불을 부치며
「참 S방직도 전동기가요?」
하고 뭇는다.
「아닙니다. 어듸가요…… 아직은 역시 와사(瓦斯)발동긔입니다. 하지만 확장할 모양이라니까 물론 전동기가 될겁니다」
사장은 조곰 몸을 뒤로 제치며
「헌데 주임, S방직 확장안에 대해서 들은바 업소?」
하고 흉금(胸襟)을 내다본다.
「네 그건 절대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어떠케 알아볼수 업슬까?…… 기왕 착수한바에는 남보다 못해서 되겟소」

승벽이 만흔사장은 여태S방직에 눌려오는 V방직을 한번 들석하게 만들어보고 십헛다.
「뭐 별거업습니다. 이기게만 노아보십시요. 사람은 훨신 적게 쓰고 물건은 멧갑절 더만들어 냄니요. 헌데 이걸 노자면 첫재 기관실을 새로 지어야 할겁니다. 그리구 또 공장도 일부분 따로 지어야 할겁니다. 지금공장을 끈치누라면 돈도제대루 들고 또 작업에 지장이 생기게됩니다. 직공도 놀리게되구요」
하는 주임은, 기실, 새기계를 노코 적은직공으로 만흔상품을 만들것만 생각하는것이다. 공장에서 잔뼈가 구터진 그는 확장에따른 회사내부의, 경리상변동이며 또는 상품을 소화식힐 판로개척등, 대외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밋지못한다. 하나 사장은 그와 다르다. 비록 이런 사업에 경험은 업지만, 회사는 중심하는 동시에 리익을 백척 올리고십흔 그의가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착잡히 꼬리를 물고 맴을 돈다.
묵묵히 안즌 사장의 입에서 오(五)과 탄복이 나오기만 바라는 장주임은 면도한지 오래아래스수염을 어루만지며 조흔생각을 비저대랑고 콘크리트가리구든 버리를 연정 짜낸다
직공기숙사를 지어야할것과, 그리하야 장차로는 직공 전부를 기숙식힐것과 남공은 죽지에 그러케 안되다하더라도 녀공만은 꼭 기숙사에 잇게할것과 그래야 결근이 적고 능률이 올른다는것을 말한다음, 한층 더 사장의 턱아래에 허리를 꾸부리며 소리를 나추어서
「그담은 몸이 쇠약한사람, 또는 오래된 고급공 대신에 절고 건강한 새사람을 너어야합니다. 양성부를 설치하고 삼주내지 한달포만 양성하면 넉넉합니다」
하고 조심히 사장을 우럴어본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북선지방에 수재가 나서 룡변이드른 관계로 사람들이 살길을 차자 허매는 터이니만치 훨신경제적으로 채용할수잇다는것과, 그런지방 면사무소나 주재소에 의뢰하면, 그구제에 머리를 알른 당국자들은 즐겨 요구에 응할것이라는것과, 함경도나 경상도 변지스녀자들은 직실하고 튼튼해서 직공으로서는 아주안성마침이라는것을 부연하야 말한다.
「이를테면 기게를 일신하는동시에 사람까지를 일신해야 할겁니다」
하는 장주임의 말에, 사장은 그제야 빙그시 우스며
「암!」
하고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한다——
「새공장에는 새공기가 필요허니까.」
하고 사장은 오십평생에 일[illegible]에 울려보지못햇든 소설가다운 한마듸를 무심코 말하엿다.
하나 그것은 그가 창작해낸 말은 아니다. 일즉 상공시찰단에 끼여서 신호, 대판, 명고옥, 동경등지를 시찰갓슬때에 어느 공장 주임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되푸리한데 불과하다. 그때는 무슨소린가 하고 탐탁히 바라듯지 안엇스나 지금 사장의 자리에 안저서 큰회사를 운전해 나가라니까 그말이 더할나위업시 적절히 되살아 왓다.
「아무렴은요 첫재 그거지요」
하고 주임은 수염에 기천입을 열며 헤버슥히 웃음을 짓는다.
그는 사장의말을 독바루 리해하지는못햇지만, 사장의 래심스러운 동정에 제절로 고개가 끄덕그려 젓든것이다

☆曆☆ 三月八日 (日) / 二月娃辛卯小 (十五日) / 己丑·火·房·開
●祭祀에 宜함
●彼岸 六日(後十三日)
●春分 十八日(舊二十一日)

劇藝術研究會 九回公演을 보고 (六)

朴英鎬

다시금 現代作家들이 『모리에르』나 『섹스피어』나 『입센』을 再讀할 義務가 여기잇다고 본다. 李氏가 取扱한 人物들은 自己所分以上의 誇張味를 가젓다. 例를 들자면 崔永秀扮의 醫師라든지 朴商彬扮의 金生員等이 그地境이다. 이것은 作者의 過失이라기보다도 演出者의 失策이 倍勝하다.
勿論 『벼룩한머리를 코키리와 가티 보이게한다』는 諷刺文學派도 잇기는하나 그것은 一種의 文學的 畸形化이다.
이런點만 作者와·演出者가 注意해주엇슬 말이면 該作은 외착업는 完成作으로 讚할수잇는 作品이다.

×

演技評:
金生員(朴商彬扮) 自然스러웟더면 낙출化粧만 成功이다. 이따금 分에 넘치는 誇張된 목소리가 觀衆의 聽覺을 구기게한다. 그러나 全體를 通하야 斷然 조화젓다. 『어둠의힘』에 잇서서 金一英扮과 함께 마음에 드는 演技者이다.
黃氏(白銀姬扮) 아즉 洗練된 演技라고 볼수업다. 舞臺中心을 일코 함부로 덤벙거리는 氣色이 보인다. 그러나 絶望은 아니다. 他日의 成功을 約束하는 분이다.
仁德(金一英扮) 取할것이업다. 아마 그의適役 답지가 안타. 『어둠의힘』에서 보여주던 熱情的인 演技를 악갑게한다.
賢順(吳愛蘂扮) 자리잡힌 演技者라고 볼수업다. 좀더 舞臺上의 經驗과 訓練이 要望된다.
아버지(許塡扮) 眼鏡쓴것이 마땅치안타. 몸씨 건방지어보인다. 그러고 아즉 一擧手一投足이 自由스럽지못하다. 將來는 有望然.
醫師A(崔永秀扮) 너무漫畵的이다. 아무리 漫畵家이기로 舞臺에서까지 漫畵를 그릴것이 무엇인고 아무런지 罪업는 演技를 보여주엇다. 前途가 洋洋.
醫師B(孟畹植扮) 마음씨조흔 아즈머니를 聯想식히는 人物이다. 別로 群拔의演技를 보인배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몸씨 印象的인데가 多分하다. 마치 智와 德을 겸전한 道德君子다읍다.

×

未備한 이대로 放恣至極한 이 붓을 꺽는다. 오직 새로운 意味의 劇研第十回公演을 期待할따름이다. (六錢多謝) —끗—

長足으로進步되는 中國의映畵藝術 (下)

徐元德

이밧게도『香雲海』에서 宗敎에 對한解明한 態度를보힌 孫瑜는 다시 有聲片『幼年中國』을 撮影하는데 그結果는 一般識者에게서 매우 期待를밧고잇다。『大路』라고하는 愛國的風格으로 裝飾하고 集團映畵를 撮影한 孫瑜는 그물과가티 淡淡한 描寫手法으로서『到自然去』라고하는 記錄映畵를 撮影中이다。溫健한 導演方法이니 成功할것이다。
俳優로는 金焰이『電影皇帝』로서 『明星』의 高占非와함께 好評이다。女優에는 黎莉莉, 陳燕燕, 梅琳等의 可憐淸楚한 姿態가 人氣를끌고잇다。
『藝華』는 以上의 두會社에比하면 多少 作品的 傾向이 稀薄하야 萬若이지로 말한다면 겨우 封建制度에對한 反抗의氣色이 若干 보힐따름이다。때로는『逃亡』과가튼 歷史的『레-마』를가진作品을 만들기도 하기는하나 그것은極히 消極的形態에지나지못한다。昨年度『女人』을 發表한 史東山은 그『스케일』의 큰것을 標榜하며『人之初』라고 하는 馱作을 만내엿스나 도리혀 俳優兼監督인 袁叢美의『코스모포리탄』手法이 好感을 갓게하엿다。俳優에는 王人美, 袁美雲, 胡萍, 袁叢美等크게人材도 업고 해서 이會社의前途는 一抹의 暗影이 떠돈다。
天一은 製作數로 보아서 五大會社에 參與하기도 어려우나 胡蝶이『電影皇后』가 되기전에 잇든『電影皇后』陳玉梅를 가지고잇는것이 한개의 强味이다。昨年度의 傑作으로서는『一夜豪華』를 들수가잇다。이作品은 生活의哀愁가갓다 속에숨어드는 深切味가잇다。導演은 高梨痕。總히말하면 이會社는 古典的인 映畵手法을 써서 그成果를 낫타내는데 范雪明, 沈西倫, 李英等이 適材適所로配置 되여잇다。
最後로 電通을 말하면 그設立이 아직도 日淺한데 不拘하고 그製作數의 量보다은 그質에잇서 五大會社의 最前線에서는 注目할만한 映畵會社이다。第一回作品은『桃李劫』인데 錄音은欠敗하엿스나 眞實한 現實映畵로서 中國인테리層에 매우 新鮮한 感銘을준 作品이다。여기서 滿悅한會社는 우선當時『藝華』에잇든 王瑩을 빼아서오는데 成功하고 다시 袁牧之、周伯勳、施超、唐納、金山等의 堂堂陣容을 整備하야 映畵製作의 根本要素를 다가추운심이다。『時代英雄』을지나 第三回作品으로 名花 王瑩이 主演한『自由神』을 製作하엿다。
以上의五大會社가서로 逐鹿戰을하는 現在의 活況은 正히中國映畵再出發의 前奏曲이라고할수잇슬것이다。

메트로골드윈 다릴 사낙크의製作으로 되는 北京폭스社의新作音樂映畵

滿洲行의 崔承喜女史 京城서도公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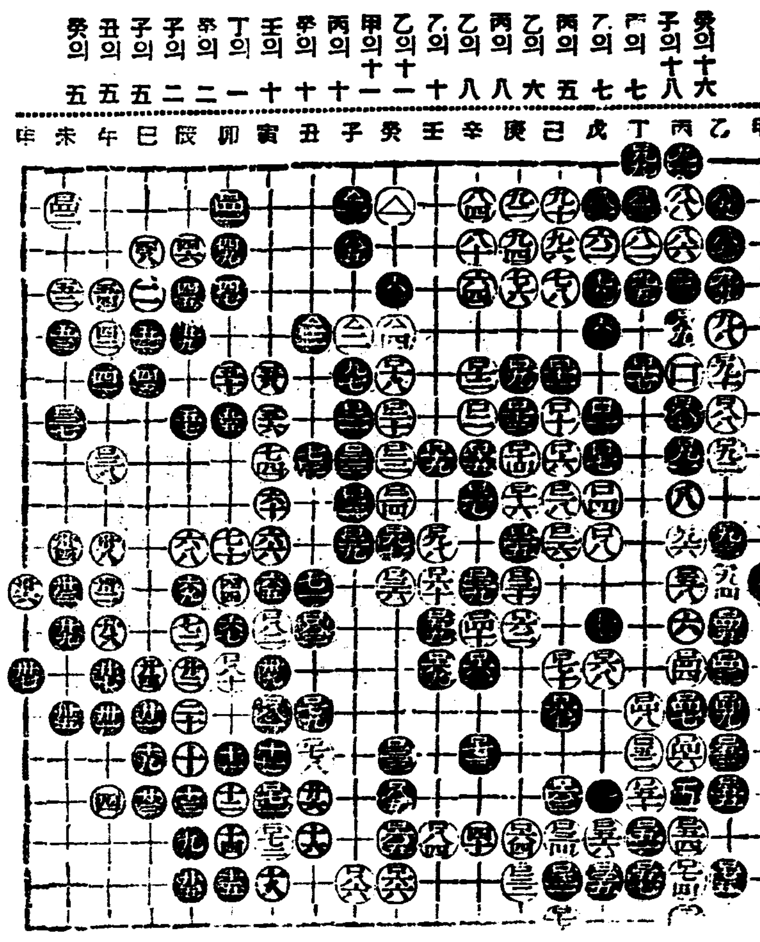
四月三日·府民館에서

조선이가진 무용가(舞踊家)최승희(崔承喜)녀사는 그동안동경에서 두번이나 신작 무용발표회(新作舞踊發表會)를 열고전일본으로 순회공연(巡廻公演)을 하야 그의인끼(人氣)는 더욱놉하가고잇스며 더욱이나 금추(今秋)에는 철도성(鐵道省)관광국(觀光局)의 후원으로 세계적진출이 결정되여잇는데 이번에만철의초빙(招聘)을바다 만주로무용공연을가는길에 경성에서는 四月三日에단하로밧의 공연이 잇스리라고한다 이번공연은 그가데리고 잇는 우수한 제자(弟子)들의출연과 조선의리듬을 긔초로하야 힘(力)과 열(熱)로써 비저내인 만흔작품으로써 당야의순서를 장식하리라하며 특히 모교 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 동창회인 숙녀회(淑女會)의 주최로 四月三日 주간에 한하야 시내 각녀학교 녀학생을 위하야『마치네』를 개최하기로 되엿다는데 어쨋든 그의 이번거름에 무엇을 보여주랴는가 가장 우리들의 흥미와 기대를 갓게하는바이다 (寫眞은 崔承喜女史의舞態)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丁奎春 / 黑 [illegible]

●一八五 癸의十六
○一八六 子의十八
●一八七 丙의七
○一八八 乙의七
●一八九 丙의五
○一九〇 乙의六
●一九一 丙의八
○一九二 乙의八
●一九三 乙의十
○一九四 乙의十一
●一九五 甲의十一
○一九六 丙의十
●一九七 癸의十
○一九八 壬의十
●一九九 丁의一
○二〇〇 癸의二
●二〇一 子의二
○二〇二 子의五
●二〇三 丑의五
○二〇四 癸의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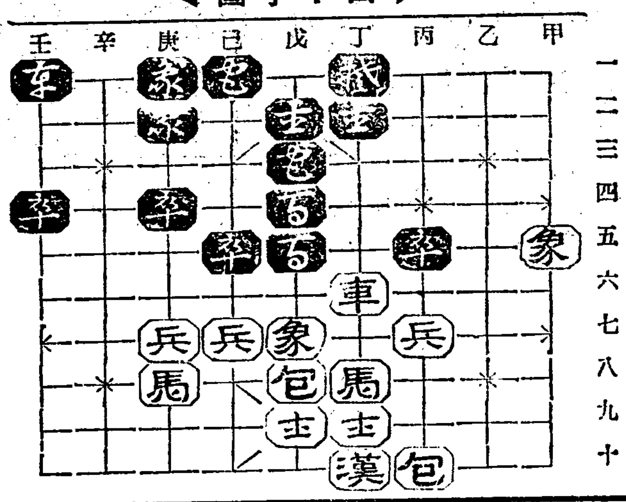


◈觀戰者談
黑口九九(丁의一)은 寅의二에 保守가 有利할것갓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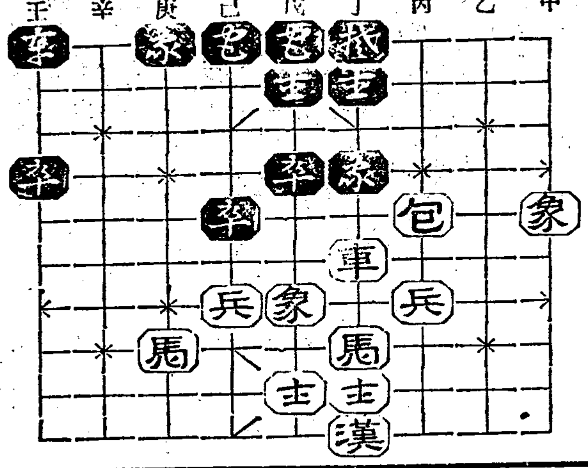
手先 漢 兵減一 李在鳳 / 楚 金漢榮

◀四十手圖▶



◀五十手圖▶

丁六車-丁四
[illegible]四[illegible]-己四
丙十包-丙五打卒
戊五[illegible]-己七打兵
戊八包-戊四打馬
戊三[illegible]-戊一
丁四車-丁六
己四[illegible]-戊四打包
庚七兵-己七打馬
庚三[illegible]-丁四



라디오

七日 (金曜)

◇午後六時 童話劇『黃金王』一景
(配役) 黃金王……沈相猷 / 公主……金貞喜 / 신령님……朴英泰 / 侍從甲……李貞讚 / 同 乙……金和植
百合어린이會 指揮 金順禎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田川孝雄
『國語』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高永煥
◇同八時 流行歌(레코-드)
◇同八時一〇分 피아노獨奏
一、慰安曲 리스트作曲 가、F調曲 나、플래트長調 二、패꼬리 三、謝恩曲 리스트作曲 笠川光吉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楚漢歌 四、遊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 大笒 金永根
◇同九時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진양됴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漢城歌 나、夢中歌 沈相健 /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
◇同六時二十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同七時四〇分(東) 立體漫談

八日 (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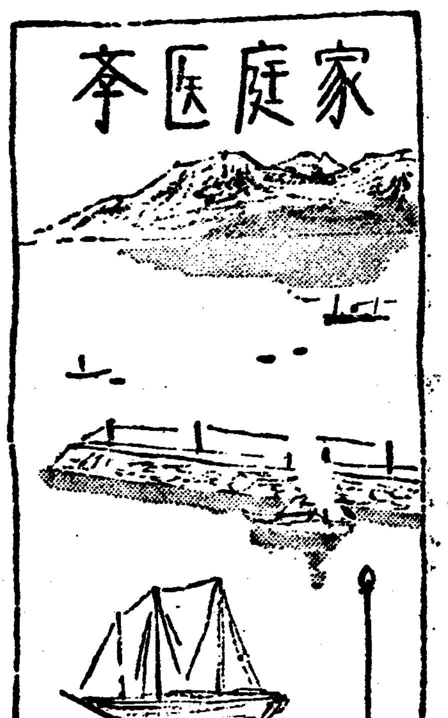
◇同八時三〇分(東) 講談
◇同九時(東) 時事解說
◇午前一〇時 日曜勤行—(全中) —京城府外開運寺로부터中繼— (邦語)解說 中央佛敎專門學校敎授 江田俊雄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春香歌』 籍 鄭商是 / 杖鼓 韓成俊 / 笒琴 金德鎭 同
◇同一時二〇分 京敎音樂 一、合唱『聖哉聖哉』 모리슨作曲『主의벗을보내주서서』…구노作曲 二、피아노獨奏…金福實 三、合唱『主의神을보내주소서』…쉬키作曲 貞洞讚揚隊 指揮 金仁湜 피아노伴奏 金福實
◇同二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俱樂部對水原高農—京城對京商
◇同六時 管絃樂 DK管絃一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 朴暎熙
◇同七時三〇分 二重漫談『新婚戰線異常이다』 李福本 / 全春雨
◇同八時一〇分 音律 一、步虛子 二、別羽調打鈴 笒琴 趙奉石 / 大笒 金一鉉 / 細笛 李鍾能 /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五分 合唱 聖譚曲『엘리아』멘델스존作曲 서울인터내쇼낼코-라스 指揮 英美理
◇同一〇分 朝鮮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西道歌謠 一、놀량 二、四巨里 三、開城難逢歌 四、방아타령 李眞鳳

第一放送 金玉葉
◇午前一〇時三〇分 日曜勤行
◇午後〇時五〇分 滿洲로부터(哈爾賓)
◇同一時二〇分(東) 露西亞音樂
◇同二時三〇分 럭비中繼
◇同六時(東) 管絃樂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長) 俚謠曲
◇同八時一五分(大) 漫才
◇同八時三五分(長) 浪花節
◇同九時五分 歌謠曲

九日 (月曜)

◇午後零時五分 獨唱 方昌德
◇同三時一五分 講演 校門을떠나는이들에게 金活蘭
◇同四時三〇分 淑明女高新入生發表
◇同三時 三月에난偉人이야기 崔鳳則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李常薰
◇同七時三〇分 陸軍記念講演『陸軍記念日을當하야』 陸軍少佐 劉升烈
◇同八時一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解說時調
『軍民一致와內鮮融和』 中樞院參議 朴榮喆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沈淸歌中』沈淸이船人따라가는데 高永泰 / 大笒 朴鍾基 / 笒琴 池龍九 / 鼓手 金東[illegible] / 鼓手 丁元燮
◇同八時五〇分(東) 管絃樂 (通俗名曲定期演奏第三回) 組曲 아를르의女子 비제-作曲
第一組曲 1、前奏曲 2、메누엣드舞曲 3、아다젯토 4、카리온 第二組曲 1、田園曲 2、間奏曲 3、메누엣드 4、파란도-르舞曲 指揮 니코라이·시펠브라트 新交響樂團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家庭講座
◇一一時(東) 小學生의時間
◇午後〇時五分 浪花節
◇同一時(東) 婦人講座
◇同三時(東) 敎師의時間
◇同六時(東) 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同八時 鐵道獨奏
◇同八時二五分 落語
◇同八時五〇分(東) 管絃樂



家庭医学

어머니에게注意 受驗工夫하는兒童에게 酸性食物은 나쁘다

—肉卵의過食도害가된다—

受驗期가迫近하여왓다. 兒童들의 非常時라고도할만한것은 藥스럽고도 難關의 적은體質에全勢力을傾注하고잇는 試驗工夫는平素工夫와달너서더욱注意하지안어서는안되는 父母의心情으로서는過度한工夫때문에머리나身體가疲勞될것이니 될수잇는대로

榮養이 豊富한 食物

을마히주어서衰弱을防止식히려고하는것은當然한일이다그榮養에富한食物로서習慣으로는于先第一노누구든지生覺하고잇는것은肉、卵、牛乳等은類似한成分을가진榮養劑이다
그런데이와가튼食品은榮養價가놉흐다고밋는것은蛋白質이나脂肪의 榮養價値만을 考慮하엿지만 그는뒤진 榮養學思想이다今日에 이서서는、蛋白質이나 脂肪의過剩으로부터오는 여러가지의弊害가確實한것을 알여저잇다。그中에도 最近에特히 注目되야온것은、此等食品이 人體內의 血液이든가、淋巴液이라고하는、即體內의水分에 對한그成分에 흐른有害한變化를이르키는것이다。
體內의水分—體液은、항상아루카리性에 갓가운것으로서 이것은健康의保持上에 가장重要한것이다。萬一그아루카리性이減退되야、反對로酸性에 가갑게되면 傳染病에걸니기쉽고、抵抗力은減退되야、

頭腦의 機能이 鈍하

야지게된다。
肉이든卵은、이體液을 아루카리性으로酸性에讓하는活動을가진 食物로서、이와가튼食物을總括하야酸性食物이라고하며、野菜와果物의大部分은그反對로아루카리性食物이라고한다。그리하야平常에도그러치만、特히試驗工夫의때에는、酸性의食物은避치안흐면안된다。
다시한가지注意할것은、工夫時에는運動不足때문에、消化不良이나便秘에빠지기쉬움으로서、그防止에注力하는것이必要하다。
消化不良을 防止하는데는 食物을多食안코 胃腸消化作用을 튼튼케하는데잇다。『腹皮가 부으면 눈갑지가붓는다』라고 하는俗諺이잇는거와가티 多食하면、血液이多量으로 集中하야 頭腦의活動을 鈍하게한다。또한

便秘는頭腦에惡化

한다。이것은、便通이멧날안되야 머리가멍하야 頭痛이이는것을經驗한다고들한다。
以上과가튼意味에서、受驗工夫하는兒童에게榮養을補給하며 胃腸을 튼튼케하며、通便에 도음되는目的으로서는、近者에 一般家庭에서 널니使用되고잇는『錠劑와가모도』를 勸하고싶다。이것은 普通化學藥과달너서、헤-예菌이라고하는 藥用微生物中에도 特殊한 種類를 選하야 藥劑化한것으로서、各種의 榮養素를 含有하고잇슬뿐아니라 細胞賦活作用이라고하는 自體의 여러가지 器官의 機能을 强化하며、疲弱을 恢復하는作用이 잇슴으로써 腦神經의 過勞를 防止、食物의 消化를 整齊한다、受驗工夫의兒童들은 꼭 반드시 常用할藥이다 連用하더라도、조곰도 副作用이업고맛도美味한 便이다。

人工榮養과消化不良

日本의 乳兒死亡率은 千人中百三十人以上 이오、世界文明國中第一位에잇다。그死亡原因의最多數를 占하는것은 人工榮養兒의 消化不良이다。
人工榮養兒에는牛乳、粉乳、煉乳等이 使用되여잇슴으로써、어느것이나理想的이 못되가에、人工榮養兒는 消化不良을 이르키기쉽고、그러면 重態되기쉽다。그런데『錠劑와가모도』를 그榮養料中에 混入하든지、授乳의때마다 給與하면、乳質이 改善되야、乳兒의消化力도 母乳에近似하게 强化식힘으로써、消化不良의危險도防止하며、튼튼한發育을보게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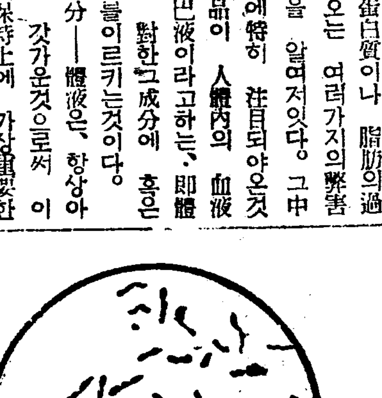
最近科學的으로進步된 小兒肺炎의治療法

房의密閉와濕布의是非

流行性感冒의猖獗과함께、肺炎이 流行되고잇는때이다、肺炎이두려운것은經過가 急激하여오기때문이며、오직感氣쯤이야하던분도 겨우 數日後에는 生命을빼앗긴다고하는일은 그러케드문일이아니다。

小兒는、罹患되는率도 만코、死亡率도겨울病中에서는第一位를占하고잇다그治療法에는一般家庭에서는舊式대로적은房에 封閉되야、火爐에물을가득피우고대야에 물을끌이면서、연이어濕布식히는것이唯一한方法과가티實行되여왓다。最近에는專門家間에流行되며外國에서도盛行되고잇는大氣療法—即房의窓門을全部開放하야新鮮한空氣를呼吸식히며 도더욱히頻繁히使用할必要가잇는

濕布보담도、그럴必要가업는것이 溫濕布로서 充分한治療를助長할目的에到來하엿다。
이方法에依하면、子先在來의蒸乾키쉬운房에서、되는대로食慾이당기지안는兒童도、食慾이增進되며、잠잘오고、呼吸은便하게되고、그리고頻繁한濕布를廢한結果는、무엇보다도身體의安靜을保할수잇게되야、弱하게된心臟을疲勞케안하며、더욱이睡眠時도濕布를取換안드라도그냥睡眠이充分하게되는것이다。
肺炎의治療에가장重要한鍵이되며이方法이가장有效한것은고首肯되고잇다。
그런데一般家庭에서이런方法을쓰게되면、細心한注意가必要하다窓을解放하더라도直接强한外風에부대끼게되면、體質的으로나弱한兒童들은도로感氣에걸니게되든지、또한食慾이增進되게되면、必然的으로 胃腸을 害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여럿때에는、이것을豫防하야體內로부터抵抗力을强化하야 **效果**를一層助長식히기때문에適當한榮養劑가 必要한것이바、그에는現在小兒科領域에 使用되고잇는『錠劑와가모도』의服用이가장有効할것이다。『錠劑와가모도』에는脂肪、蛋白、구리코-겐、燐、鐵、페라민이라고하는多種多樣의榮養素、及十數種의活性酵素라고하는成分이包含되야잇다。이酵素는體內의各種機能에活力을給與하야、그活動을旺盛케하는作用을갓고잇다、特히胃腸을 튼튼케하는作用이 顯著하야 消化吸收의活動을 第一로식힘으로서 榮養狀態가好良하야 抵抗力이튼튼케된다。
그럼으로서 이藥을日常服用하게되면 이와가튼不安도 自然히除去되며 그豫防에는물론、肺炎의治療와 療法과相俟하야 一層促進되여잇는것이다。
더욱이『錠劑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二種을 一日僅五六錢(小兒에는一日二三錢)에 不過한廉價로 發賣中、近來에 그類似한藥(酵母、삐-루酵母劑라고하여도)을 利用하야 效果에疑問되는類似品을 販하는藥店도잇슴으로 各注意하라。



肺炎菌의擴大圖

盜汗에困難밧든 愛兒의肺炎

(福岡) 白小美子

바로 二年前가을、肺炎으로서 오랜동안 入院하엿든 長女(三歲—當時一歲)가 나엇기에집에 돌아와스나 盜汗이 甚하여、덧이불까지 땀에젓게되엿다。잠도못자고 잇섯다。擔任醫師에게 보이엿드니(中略)점차로 飲食物을먹기始作하엿다、이냥지날수밧게 업다고하엿다。
이盜汗때문에 하로에 衣服을四五回방주어입엇다。애기는겨우나어는 感氣가 또 되엿다(中略)남이조타고하는일은 大槪다 보해왓지만 結局 아모効果를 보지못하엿다。
어떤날 主人이 商店에서 歸路에 膳物로『錠劑와가모도』를 사가지고 왓섯다。(中略)곳 服用식혀 보앗더니、그러케도 盜汗이甚하던것이、어느덧 씻슨듯이 나어갓다。그때에기쁘던것은、아직도 이질수업는일이다、只今까지도 每日 계속하야 服用식히는 中이다。애기는 종이라고기뻐하면서 먹는다 요즘은 感氣한番도 안들니고、每日질거웁게 달어단이면서놀고잇다(後略)

無代進呈

여러가지興味잇는漫畵物과醫學、育兒의知識等을滿載한月刊誌『榮養と育兒』를全國數百의著名藥店에서無代進呈하고잇습니다。近方藥店에請求하시면드림니다

藥店에 藥店에는 右의『榮養と育兒』를 頒布하오니、詳細는 東京芝公園『榮養と育兒社』에照會하시라

小作爭議調停申請
勿驚！一日中十六件
今春累計五一件中解決單一件
激化하는咸南小作爭議

【咸興】 루보ㅡ함남도의 소작쟁의는 농경긔를 당하여 더욱격화하여 매일수용의 조정신청이 함흥군소작위원회사무에 쇄도하고잇는데 지난오일까지 접수된총계건수는 오십일건의 다수며 오일하루동안에 제출된것만이 무려십륙건에 달한다고하는데 그중에 해결된것은 단일건뿐이며 관계농민들은 소작위원회의 태만을 극히비난하는기운이잇스며 이가티 격화하는 소작관계에 극도로 주목을 집중시키고잇다

石岩公立普校 期成會再組織

【石岩】 공유교육열의팽창을따라 서암에서도 보통학교의 필요를늣기고 지난소화칠년에 유지들이 모여서 긔성회를 조직하엿든바 그동안 유명무실중에서 지내다가 지난삼월일일에 유지제씨가 모여서 이번에는 철저한각오하에 긔성회를 재조직하야 구체적활동으로 명춘에는 보교의설립을 보게되리라는데 일반은 동회의활약에 만흔흥미와 긔대를 가지고잇다한다

◇選任任員▲會長 辻本宗二郎 ▲顧問 金潤一 ▲副會長 韓承文 ▲幹事 金相元外廿七名

興南赤勞事件
最高二年半最下一年
五日咸興法院서言渡

【咸興】 긔보ㅡ흥남적색로동조합사건 김필수(金必壽)등 삼명에관한 언도는 오일오전열시함흥법원에서 평곡(平谷)판사의담임으로 개정되여 각피고에게대하여 아래와가튼 판결이잇섯는데 집행유예에는 한사람도 업섯다

金必壽 三年半 金鍾燮 一年半 尹鴻淳 一年

農耕期를압두고 作權을無理剝奪
十個年耕作의契約을理由로
小作人等調停을申請

【公州】 충청남도에는 지주의 작권박탈이 빈번함으로 공주군 소작위원회에서 작권이동은 절대방지할 방침을 세우고잇는데 공주군계룡면경천리(鷄龍面敬天里)에거주하는 김교헌(金敎獻)외 이인은 론산군련산면고양리(論山郡連山面高陽里)에거주하는 지주김우현(金禹賢)의소유답 경천리소재 십륙두락을 소작하든바 토지를 매도한다는리유로 소작권을 박탈함으로 전긔소작인들은 전긔경작토지를 소화구년도부터 십개년소작게약을 지주와 체결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작권을 박탈한다고 소작인등은 공주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야 오는십일일에 쌍방을소환하야 조정을 할터이라고한다

奇特한妓生！
嶠南校復興會에 寶石指環을提供

【大邱】 여러남성들에게 인형노릇을하여 온갓설움배에게 천대와 모욕을 달게바드면서 남모르는한숨과 눈물가운데 푼푼이 모아서 몸에끼고잇든 보석반지를 학교부흥비에 긔부한 곱고 귀특하고 사랑스러운 젊은기생이 대구에잇다는바 그는대구서천대전정(西千代田町)십사번지에잇는 대구명기 류춘도(劉春桃)(二三)로 대구교남학교(大邱嶠南學校)가 재정난으로 폐교의 위긔에 빠저잇다는 신문의보도를보고 참아견듸지못해 그날그날을 빈궁한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전긔학교부흥비에 약소하나마 보충하라고 애지중지하던 보석지환(寶石指環)(現時價二百圓程度)한개를 학교로차저가서 긔부하엿다 동학교선생들과 생도들은 감격하야 마지안는다하며 대구일반사회에 만흔충동을 주고잇다고한다

◇寫眞…認可된普明農民學校 校舍全景과 設立者 金泰希氏

告發의錯誤로 헛强盜騷動

【錦山】 지난이십칠일 계명성이 소란하게 려명을 보할때쯤하야 한적한당지한산에는 고발잡닥인 강도사건으로인하야 삼십여리나 원격한 경찰서형사 자동차대가 출동하야 농촌의적막을 깨트리며 출동하는등 일시는 문자그대로의 극적장면을 연출하여 일대소동을 이르켓는데 이제 그 자세한바를 드르면 당지 한산면주곡리(東里面)리종석(李鍾奭)(二一)은대바구리(竹細工)영업으로 전가족이 구차하나마 이럭저럭 생활을 유지하든중 그월여나 전력을다하야 맨드러두엇든 십여개의 대바구리전부를 지난이십륙일밤 어떤자에게 도난을당하고 졸지에 생도가끈허진 피해자는 너무나 울분과 분함을 참지못한끼 절도사건을 강도로고발하야 그와가티 일시소동을 이르키게한것이라한다

丙子年을밋기로 金品騙取튼惡輩
利川警察署에打盡

【利川】 지난이십구일 조조에 리천경찰서원이 룡인군외사면장평리조천사(龍仁郡外四面長坪里朝天寺)에 출장하야 동사에거주하고잇는 류길동(柳吉同)(三〇)정수철(鄭壽鐵)(二七)연남직(延南稷)(二六)손해천(孫海天)(二六)등사인을 검거하여다가 엄중한취조를 하다가 지난이일 사긔죄로 일건서류와함께 수원검사국으로 송치한 사건이잇섯다 전긔류길동과 정수철등이 수모로 연남직 손해천을 다리고 돌아다니면서 금년은 병자년 즉큰액년인데 그액을 물기위하야 불공을드리자 안흐면 액을면치못하고 더욱이 아들을둔집에서는 소액을 하지안흐면 아들이죽는다는등의 긔괴한 수단으로 무지한 촌부인들을 속여 백미금품을 편취한사실인데 신둔면 수광리(新屯面水廣里) 삼백칠십팔번지 김윤직(金允稙)의 집에서 백미이두와 금삼원을 편취한이외에 수처에서 동양의수단으로 금품다수를 편취한것으로 전긔류길동과 정수철은 전에도 각가지긔죄로수원지청에서 긔소유예와 긔소처분을 바든자들이라한다

假醫師送局
大金詐取한

【釜山】 함남원산부 북촌동(元山府北村洞)에사는 무직 김귀환(金貴煥)(三二)는 지난 이월일일에 부산에와서 부내본정(本町)제일려관(第一旅館)에 투숙체재중 부내영주정(瀛洲町)륙백이십이번지 양화제조판매업(洋靴製造販賣業) 한정수(韓正秀)집에가서 여러가지의 잡담을한후 자긔는 동경제대의과를 졸업하고 동경상애병원(東京相愛病院)에서 이개년 독일(獨逸)에서 일개년을 연구한후 의학박사(醫學博士)가되여서 금번부산부립병원(釜山府立病院)에 월급일백팔십원에 취직하고잇스는데 독립개업할양으로 자금을 구하는중이라 마침 한정수의차남 영룡(英龍)(三)이가 병으로 모의원에 치료를 밧고잇다는것을듯고 삼일간이면 전치시킨다고 장담하고 치료한결과 다행히 전치된것을 긔회로 여러가지의 감언리설로서 일백이백여원을 사취하얏다는것이 판명되여서 부산경찰서에 검거되여 사긔(詐欺)의사범으로 지난륙일에 일건서류와함께 부산검사국으로 송국되엿다한다

開城電話申請
來十六日까지

【開城】 개성우편국에서는 삼월이일부터 동십륙일까지 십일년도전화개통신청을 접수한다는데 신청긔한이 지난후에 신청하면 일체불응할것이고 또신청자가만흔경우에는 추첨에의해서 결정할터이라는바 일반지망자는 지급히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下南水利組合
十六評議員改選

【密陽】 밀양군하남수리조합(下南水利組合)에서는 지난삼일 오전열시부터 동조합사무실내에서 평의원을 개선한바 당선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新評議員當選者▲東拓會社 李厚宅 森山八郎 興業會社 南貫一郎 柳太郎 河野晶 曹有植 野田實 閔丙憲 松下孝男 閔李植 鄭炳鎬 金泰鎬 金良永 國谷喜十郎 以上十六名

垈地貸借不許로 家屋新築數激減
某某地主들의橫暴한處事
甕津邑發展에大問題

【甕津】 황해도옹진읍은 해마다 날로발전하여가는 중인데 이를조긔로 지주들의 토지를 삼배내지 오배가량을 인상하여가지고 수십차 지인에게 지서를 발부하얏슴으로 차지인측에서는 결속하야 지주와 항쟁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경찰당국에서는 지주와 차지인들을 불러다가 쌍방이 적당하도록 타협을시킨결과 지료만은원만한 해결로 일단락을 지엇는데 옹진읍의 현재호수는 팔백호에 인구오천을 포용하고 발전도정으로 날로진전되여 가는중임으로 금년 봄부터 오는겨울까지에 가옥신축 희망자들이 이백여호를 돌파하야 금년내로 천호를 돌파하게될 것을간파한 모모지주수명은 교활한 수단으로 지료를 무리인상하려는 야심하에 대지대차(垈地貸借)를 불허하기 때문에 가옥신축수는 격감될것으로 옹진읍발전에 중대문제거리가되여잇다

困窮의小作人爲해 租二百餘石施與
農場主金季洙氏盛擧

【靈光】 김년수(金季洙)씨가 경영하는 삼양사영광농장(三養社靈光農場)에서는 작년의 흉작으로인하야 곤궁에헤매는 동농장 소작인 구백사명에게 정조이백이십륙석(매인에두말닷되식)을시여하엿다는데 때안단 눈과치위가 여업계속하야 세농민의 생활에 일층위협을 밧고잇는이때 적지안흔 도움이 되리라하며또 동농장에서는 종자로 열백열섬을소작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고하는데일반은동씨의 이미거에 마강의감사를맛기지안는다고한다

牟麥凶作難免
務安地方一帶에

【木浦】 전남무안군(全南務安郡)에는 밧(畑)총면적이 일만칠천여정보중에서모맥(牟麥)경작지가 일만사천여정보인대 고령로인들의 말을드르면 사십년이래 처음보는 치위강설로 맥엽이동결되여 싹이자라지못하야 작년에비하면 약삼할가량의 감소를예상한다는바 설상가상으로 작년의 농작은 십여년이래 처음보는 한재로 말미아마 목하농촌의경황은 극난에빠저 헤매이는차제에 맥작까지 난면이라고하야 크게우려중이라고한다

다시금曙光비친 普明農民學校
지난二十八日附正式認可交附
校長金秉律氏功績

【鎭南浦】 평남 룡강군 다미면(龍岡郡多美面)에는 순전히 농촌자제의실업교육을위한 특수한 교육긔관이잇스니 보명농민학교(普明農民學校)이다 동교는 당지유지김태희(金泰希)씨의 단독경영으로 소화구년도에 사재만여원을 드려 교사(校舍)와 직원생도들의 긔숙사를 비롯하여 퇴비사 농구실 창고(堆肥舍 農具室 倉庫)등을 신축한후 초등학교졸업정도의 생도삼십명을 모집하고 농과전문(農科專門)출신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실제교육을 하여오는일방 동교의 긔초확립을위하여 삼만원의 긔본재산을 적립하고 작년이월평남도당국에 인가신청중이든바 만일년만인 지난이월이십팔일부로 정식인가가 잇섯다는바 동교의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이크게깃버하는바 동교교장은 설립자의 령식 김병률(金秉律)씨로 일즉 평양숭전농과(崇專農科)를 졸업한후 이래동교를위하여 몸소교편까지잡고 분골쇄신 헌신노력중이라는데 동교는 조선의 「에덴」건설을목표로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긔관이니만치 일반이 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하며 동교의 전신은 역시 김태희씨의 설립으로 여년전보명학교란 촌등교육긔관으로 설립되엿다가 소화구년도에 학측을 변경하여 보명실업학원(普明實業學園)으로되여 오늘와서 농민학교로 승격되엿다는바 교장김병률씨는 다음가티말한다

校長 金秉律氏 談

제부친께서 생전에어더한 희생을 다하여서라도 이긔관을 하나만은 완전한긔초우에 서도록하시겟다는 성의에 따라 삼년이란 세월을두고 풍상을 격그며 지내엿스나 오날이정식인가를 바드니 그깃븐마음은 한정이업슴니다 다만지방유지제씨의 렬렬하신 성원을 감격 할뿐이며 압으로 삼만원의 재단 법인수속 까지만 끗나면 빈약하나마 우리농촌자제실업교육에 다소도음이되리라고밋슴니다운운

郡北公立普校 學級增設期成

【咸安】 함안군 군북공립보통학교(郡北公普)에서는 매년입학긔를당하면 년중행사와가티 입학난을 부르지즘으로어린이의 가삼에 실망과 불안의 상처를주고잇다 금년에도 륙십명모집에 범서이백여명의 지원자가 쇄도하는 방법에잇서서 고심하고잇다 작년에 조직된 군북공보학급증설긔성회에서는 신년도부터는 한학급을 증설하려고 방금 위원들은 불면불휴의 성의로 부담금중수에로려중이라는데 이미 관계당국의 량해도 어덧스며 부다금중수성적도 극히 량호함으로 불원간에 전액이 수집되여 소긔의목적을 완성하리라한다

鴨江野話

◇ 지난번 新義州府會에서는 新聞記者出身의 新野라는 議員이 『豫算審議란것을 逐條審議하야 數字가 늘엇느니 줄엇느니 해야 지부지하다가 그만두면 무슨 所用이잇느냐? 적어도 豫算編成의 根本方針에對하야 討議할 機會를 주는것이마땅하다 그리하라면 一讀會란것은 豫算의 歲入歲出 全般에 亘하야 討議하도록 一括上程하라』고 提議하드니 지난三日부터 審議(?)를 開始한 平北道會에서도 이審議方法에對하야 거의半日을費하며 論難하얏다

◇ 即 여러議員의意見을 綜合하면 一讀會란것은 歲入歲出全般을 一括上程하야 質問討議를하게하라 다시말하면 豫算編成의 根本方針을 討議케하야달라고하야 議論이 紛紛하얏다 所謂決議機關이 되얏다할지라도 從來 府會나 道會란것은 『意見陳述會』『議案이나提出하는 會』이오 豫算審議란것은 形式에 不過하는 會이엇다『第何條몃項의 數字가 빗스러젓느니 바로되얏느니』(우리곳 압개천에 다리가업느니)等問題로 數日間論議하다가는 『이제原議案이나 提出하고 그만저만 原案贊成』이라하고 大闊步로 고개스짓을하며 議場門을 나서든것이 慣例인데 今番은 道行政에對한 根本을 問討議한다고 한것 從來보다는 色彩가 조곰다른것갓다

◇ 그根本方針에對한 討議란것이자차 어느程度에 까지나 이를는지 議員과 當局者의 意見이 로 다른것만은 事實 그때의 當局者의 答辯은 『本府의方針이니 엇절수업다가 唯一한 武器일모양 方針대로만한다면 道會는 何用?』

以文堂

朝鮮의第一

全科新參考書

豪華版

以文堂參考書라야優等生이된다

全朝鮮各普通學校小學總指定

華麗한科學書報·各課마다挿畫滿載

미술인쇄、과학화보、속속들이 각과마다 사진판을넛코、어엽분 일곱색 옵세트표지·크로쓰(背크로쓰)로써서 아름다웁게、튼튼하게、맨든책

京城第一高等女學校 教諭 藤倉眞知先生 監修

元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 教諭 兒島元喜郎先生 監修

今年新版

昭和十一年 前期用

學年	定價	送料
二年用	二五錢	四錢
三年用	三十錢	四錢
四年用	三十錢	六錢
五年用	四十錢	八錢
六年用	四十錢	八錢

四年制用

學年	定價	送料
三年用	三十錢	送料六錢
四年用	三五錢	送料六錢

發行所 京城府寬勳洞一三〇 電話(光)一〇一四 振替京城二七四八番 株式會社 以文堂

風病

大風病을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藥이本藥院에서發明되엿다此風病藥이出生한지不久에慘酷한大風患者로서完全根治되는者가續出되며甚至於病院에서健康診斷을바든者도有하다本劑는더말할것업시三朔가되도록病患者라도三個月만服用하면表面에나타난風病症狀이完全히治癒된다다시말하면빠진눈섭이完全治癒되는데끝의결절과또왼몸의惡瘡이完全히나ㅅ고얼굴이붓고또붓는데와전풍(속담에 흑전자전백전)이完全히治癒된다大風病이란一生을두고別別藥을다먹어도낫지안는무서운疾病이지마는本劑는單三個月內에表面에發作하는一般風病症狀이完全히治癒된다患者諸氏여무서운風病을撲滅하고남과갓치健康者가되여보겟다는決心이잇는분은一刻이라도지체말고速히強壯チモール丸을服用하시라그리고顔面에風病症狀이發現된분에限하야強壯チモール丸三個月分을外上으로드리오니服用한後에右와갓흔特効가잇스면藥價를支拂하고効果가업거든藥價를支拂치안이도조습니다風病說明書有返信料四錢切手添付照會면無代進呈함(藥書照會는謝絶)

釜山府草梁町回春藥院內癩病根絶策研究所 急告

HHH 最高級品

靴를튼튼케하는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삼엣취 구리ー무

本舖 東京 新?商店

三月四日부터 每日晝正午十二時早 夜七時開場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파라마운트社本年度超特作 日本版

잘잇거라 海軍兵學校

愛國과 其決意 그리고老母 바다의武士道 파라마운트社超特作日本版!

로이드의발이第一

자미스런名作喜劇

監督 島津保次郎

私の兄さん

林長二郎、田中絹代 主演

突然時代劇의스타ー林長二郎氏가 現代劇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現代劇

仁寺洞 電光 三八二 朝鮮劇場

三月八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階上席十五錢階下席十錢

PCL社超特作品全發聲

監督 成瀨巳喜男

女優と詩人

宇留木浩千葉早智子主演

女子의收入을가지고사는가는貧寒한童謠作家의家庭에는悲喜劇을展開하엿다! 名作이며 小說家의家庭! 도이옷에保險 婦에家庭女子主將에三家庭에서일어나는珍珍한喜劇!

파라마운트社全發聲日本版

랄후、마ー후이監督

冷藏庫의어린아이

리차ー드、아렌 사라이아이ー라 主演

米國FBO社無聲版

젬스데유강監督

뛰는曲線美

젬스뻬ー아스 호ー킷ー포루ー아스 主演

次週豫告 豪華船 決死의奮戰 絹の泥靴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一五五番 第一劇場

CAS—4

サッポロビール

뻐로삐ー루

アサヒビール

아사히삐ー루

하로한때의陶醉境

그속에서明日의活力이넘처난다!

朝鮮麥酒株式會社

經濟時評

財界動態考察
新內閣難産事情
◎ 中 秦 鏞

岡田內閣으로 廣田內閣이 나타나고 그組閣人物中 馬場藏相이 藏相의 椅子에 앉게되야 結局은 高橋財政의 延長으로 多少의修正이 잇는程度에 不過할것으로하야 財界各方面에서는 얼마큼 好感을 갓는模樣이 엇서보엿다 그러나 이組閣에 對하야 軍部로부터 强力內閣으로 認定할수업다는見解아래 廣田內閣을 拒絶하야 廣田內閣도 難産으로 或은 流産을 보게될지 모르는形勢가 濃厚하다 그럼으로 前回에잇서도 順序가 섯재로 政局의 動搖에 對하야 말하기로 되엇슴으로 무슨까닭에 이처럼 後繼內閣의 難産을 보게되는가 함을 엿보라고한다

×

웨 이번事件이 생겻고 또는 岡田內閣을 一部에서 무슨까닭으로 攻擊하엿든가 함에는 여러가지의 理由를 들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음과가튼 두가지의 理由를 들게된다 即

첫재 自由主義經濟의 排擊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滿洲事變을 契機로 시작된非常時局에잇서 資本家側은 非常時局다운 色彩가 업시 一面自由主義 經濟組織에잇다 그러나 農村의 疲弊는 何等의 好轉을 보지못하고 結局 一部인資本家側으로 하여금 거이그利益을 獨占케하고 잇다는點이 排擊의目標이다 그래서 統制經濟의 積極化 또는 그 强化의主張이 머리를 드는同時에 이것이 相當한 勢力을 잡게되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

둘재로는 高橋財政에 對한 反對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高橋財政은 時代와 逆行되는政策을 取하고잇슬뿐만 아니라 그裡面에는 資本家利益의擁護에 어대이고 잇다는것이 攻擊의 큰裡面的理由이다 이點은 어데엇지인가하면 (一)赤字公債의 濫發主義인것은 高橋藏相의 人的力과 金融資本家의 協力으로서 支持되어왓고 (二)一面으로 增稅與軍方針은 產業資本家의 潛勢力과 特殊資本의 … 一般大衆의 負擔으로 轉嫁하여 온것이라고 一部는 指摘한다 그래서 高橋財政은 財界本位의 財政 即財政的財政 또는 金融資本位의 的財政으로 보게되고 떨허서 統制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은 적어도 이에對한 修正 다시 말하면 財界의 統制經濟에 積極的 또는 國民的財政政策으로 轉轉케안을수가 업다는點이다

×

以上의 두가지點을 提唱하는 理由가 어데 잇느냐고 하면 오늘은 非常時인만큼 그에 相應한經濟를 確立하여야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첫재로 國防에잇서 어듸까지 그充實을 期하게하야만 된다는點 둘재로 財政에서 허더 어려운 國民生活을 무엇보다도 安定식히는 施設이 緊急하고 떨허서 國力 增進의必要를 明確히 늣기고잇다 그럼으로 新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은 지금까지의 高橋財政을 떠나서 以上의 根據를 二大主眼으로 삼어야만 되다는것이 軍部를 비롯한 一部가 主張하는意見이다 그런데 이와가티 財政統制化를 眼中에 안두고 그强化를 提唱하는데는 考慮할수업는 理由가 잇다 即 오늘에잇서 健全財政을 破壞함으로서 생기는 損失보다도 軍防擴充을 中止함으로서 생기는損失이 一層大하다는것이다 그럼으로 어것한 말로하다면 그들의主張은 財政을 健全化케할 必要를 늣기는것보다도 對內對外의모든事情이 赤字公債를 增發하고 一面으로 增稅公債利率의 低下로서 國防의 擴充 또는 農村救濟의施設이 眼前에 절어진時會을 要하는問題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廣田內閣은 高橋財政의延長 또는 高橋財政의 踏襲인 程度에 끄칠것으로 보이는마는 이點에잇서 突然 軍部로부터 不滿이 생기고떨허서三日間이 되도록 組閣을 보지 못하고 難產 또는流産說이 생기는事情이 이곳에잇다

—(續完)—

株式市場續休會
財界는憂色,不安
金融界一般도萎縮

廣田內閣組閣難

廣田內閣의 組閣難으로 財界는다시 憂色을띄어 不安에 掩襲되고 七日再開를 決定하얏던全國株式取引所의 續休場을 비롯하야 金融界一般도 萎縮되어잇다。

【東京電話同盟】 東株取引所에서는 七日前場定刻立會를 開始할터이엇스나 前日來廣田新內閣의組閣이 一頓挫를招來하야 政局의前途觀測으로 財界에 憂色이잇슴으로 市場動搖를 念慮하야 七日午前七時 緊急役員會、取引員組合協議의結果 七日도 繼續하야休會키로 決定하고 政局의推移를보기로되엇스며 大株에서는 東株와同一步調로 七日도繼續臨時休會키로 決定하얏다

手形交換 比前月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査二月中의 朝鮮內手形交換高는 二十二萬一千六百五十五枚 一億一千四百九十二萬六千七百圓으로 前月中에比하야 九千二百七十枚 一千百六十八萬一千七百五十四圓의 各減少、前年同期에 比하야 二萬八千七十二枚 三百二十一萬二千三百六十五圓의 增加이다

家蠶繭販賣狀況 八百五十二萬圓 比前年十割激增

昭和十年의 家蠶繭販賣는 共同販賣에依한 數量九百二十二萬九千二百九十八瓩(二十九萬五千二百二十四石) 其價額六百八十五萬四千百八十五圓、個人販賣에依한 數量 百八十五萬四千八百九十五瓩(五萬七千八百七十六石)其價額百六十七萬五千二百十六圓으로 兩者數量合計는 千百四萬四千百九十三瓩(三十五萬三千百石)其價額八百五十二萬九千四百二圓이다。이것을 前年에 比하면 數量은 百二十六萬二千七百四十七瓩(三萬九千九百七十八石)(一割二分九厘) 增加이오 價額은 四百二十四萬八千七百二十八圓(九割九分三厘)의激增을示하야 三十二瓩(約一石) 單價로는 十圓七十錢(七割七分四厘)의高價이엇다。本年의 家蠶繭販賣狀況은 生絲需給關係의 好調에依한 絲價의高騰及蠶品種의 改良에依한 繭質의向上에 因하야 產繭額은前年보다 減少되엇스나 販賣數量과 價額은 共同販賣는前年보다 多額을 示하얏다。

桑田面積減少

昭和十年의 全朝鮮桑田面積은本面積 二七、四一九、五陌、豫想積 四九、〇二五、九陌 合計七六、四四五、四陌(七七、〇八二町步)으로서 이것을 前年度實數에 比較하면 七〇九陌、九厘의 減少이다 그리고 山桑面積은 三、〇二二九陌(三、〇五五町)으로 前年에 比較하면 六〇三、八陌(一割六分三厘)의 減少이며

立適桑田 三九、六七九、〇陌
根刈桑田 一九、五七七、六
中刈高刈 一七、一九三、八

로서 立適가五割一分을占하고잇다

貯銀預金積金高

朝鮮貯蓄銀行二月末 預金積金 現在高는 如左하다 (△減)

	二月末現在	比前月末
通常貯金	[illegible]	[illegible]
特約貯金	[illegible]	[illegible]
掛置貯金	[illegible]	△ [illegible]
殖產貯金	[illegible]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石炭液化事業 獨立會社創立說擡頭

【大連七日發同盟】 滿鐵의 石炭液化事業은 水素添加法에依하야 資金一千萬圓으로서 十一年度부터 着手코저 十一年特別事業費에計上하얏는데 目下 水谷顧問이 政府와折衝中으로 年產二萬噸에對한 百萬圓의 補償金交附問題로 停頓되고 實現의可望이업음으로 石炭液化事業을 滿鐵로부터 分離하야 獨立會社로하고 이것을行케하자는 意見이擡頭되엇다 即石炭液化事業은 確實한 採算的事業이아니오 國策的事業임에 鑑하야 滿鐵直營의事業으로 함보다 獨立會社로經營함이 有利하다하야 滿鐵單獨出資의 傍系會社로서 政府로부터 損失補償을 得코저하는 案으로 滿鐵은 水谷顧問의 折衝如何로 이案을 政府에 提出하라라한다

內外石油 値上協議 米國原油高로

【東京電話同盟】 米國칼니포니아의 原油井元價格이 約三割가까히 引上되엇고 最近의 船運賃高와 相俟하야 將來石油會社의 採算關係가 相當히 惡化되리라고보아 이에關聯하야 早晩値上問題에까지 發展될것으로觀測되든바 內外石油會社에서는近日 協議會를 開하고 正式으로 石油値上問題를 期待하고 愼重協議키로되엇다 其値上程度에關하야서는 原油値上의 影響이까소린精油의 場合는大體四、五錢의 値上을 示하고 普通石油는 二錢高價로되리라한다

朝鮮沿海交通量

朝鮮沿海에잇는 各燈臺의調査에依하면 最近一個月間 各燈臺附近을 通過한 船舶總數는 一萬八千七百四十隻인데 此를 前年同期에 通過船舶數와 比較하면 一千百四十一隻을 減少하엿다 그리고 通過船舶이만흔 燈臺를表示하면 左와如하다

燈臺名	通過船舶數
牧之島燈臺	二、四七三隻
加德島燈臺	二、〇七一
馬養島燈臺	一、六二九
長箭岬燈臺	一、二八七
魚龍島燈臺	九九五
巨文島燈臺	九一〇
城津燈臺	八三七
蔚崎燈臺	八〇九
注文津燈臺	六四四
末島燈臺	五六五
西湖津燈臺	五八六

以下略

朝石販賣會社設立?

朝鮮의 日本內地石油會社製品의 取扱業인 日石、辰己商事(小倉) 東洋商事內鮮石油、三菱等 五社는 過般總督府로부터 七月以降 朝鮮石油 製品全部를 取扱하도록 慫慂하얏슴으로 對策에 關하야 關係製造會社와 商議中인데 日本內地 製造會社의 意向에 基하야 朝鮮石油와 折衝키로 되엇다 그런데 大體 朝鮮內業者의 意向으로서는 朝鮮石油의 販賣會社를 設立하야 株式을 引受하고 喪失한 權益을 擁護하자고할 模樣이라한다

鰮鑵詰輸出統制
魚粕、魚糧도輸出檢査施行
水產製品規則改正

水產製品 檢査規則中의 一部改正은 審議室에서 審議中이든바 脫稿되엇스므로 不日中에 公布하야 實施할豫定인데 同改正은 日本內地가 農地令에依하야 鰮製品에對하야 二月二日付로써 計期的輸出法規를 制定하얏슴에 順應하야 朝鮮도 이와同一規格으로 統制코저하는것으로 우선豫算關係로 鰮鑵詰에 適用할것으로 年度內에 公布하야 四月부터 實施할豫定이다 魚粕、魚糧에도 輸出檢査의施行을 보게될豫定인데 이것은豫算關係로 追加豫算通過後로되리라한다。

鰮油粕中央機關 細目을再會合協議

鰮油粕基本契約改訂에 伴한 各道水產組合의 聯合中央機關設置는 來二十一日부터 更히 水產業者代表가 京城에 會合하야 細目을 協議키로 되엇는데 右中央機關은 新製品出廻初인 六月頃까지에 設立을 終하기로되엇다 右中央機關의 直賣는買方을指定하기로될 模樣인데 有力視되는것은 三井、日本食糧、全購聯 其他四業者等이오 이指定買受人의 範圍及三菱과 直賣의數量比率等에 關하야서는 相當한 議論이잇스리라한다

在滿金融會 聯合會設置
朝鮮人農民에게有利?

【新京商通電話】 全滿朝鮮人唯一의 金融機關으로서 春耕資金의 貸出、農民의 購入 或은 災害의 救恤等 朝鮮農民金融의 모든機能을 發揮하고잇는 全滿金融會의 三十五個所 統制連絡과資金의 調節指導等을 行코저 大使館朝鮮課에서는 金融會聯合會의 設立을 企圖하고 委員을擧하야 設立準備를 하든바 諸般準備가 成立되어 數日中에 設立될터이라는바 이에 依하야 從來보다 資金이調節되고 一般朝鮮農民에게 充分한融資도可能하야 將來 同聯合會의動向이 各關係方面으로부터 注目되리라한다

米日爲替强保

【紐育六日發同盟】 本日米日爲替는前日과 比較하면賣二十九弗十四仙으로 一仙高이오 買二十九弗十仙으로 保合이다

東京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一 買 二十九弗十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卅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一 買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卅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電氣事務協議會를 遞信局主催로開催

遞信局主催下에 三月十日부터 三日間 京城府民館에서 各道保安課長並 電氣事業監督事務主任이 電氣事務에 對하야 協議會를 開催하고 右가 終了하는 十三四日의 兩日은 遞信局分館會議室에서 電氣事業監督事務主任만의 電氣事業에對한 協議會를開催하기로되엇다

鱈漁權入札價 前年보다騰高

鎭海灣을 中心으로한 一帶沿岸의 鱈漁業은 近年에 至하야 漁獲高가 激減한까닭으로 一時斯業者間에는 悲鳴을 울리는 同時에 鱈群來流가 업슬것으로 斷念하고 同漁權競賣는 全혀 그價格이 失墜하야 價格이 오르지 아니하얏는데 昨年 冬期에는 例年의 不況에 比하야 相當한 產額이잇서서 去二月二十五日 鎭海灣定置漁業水產組合에서는 統營座에서 十一年度 同漁業權 貸付競賣入札을 執行한 結果 各地로부터 斯業者 百五十名이 參集應札하야 活氣를呈하고 二個所의 落札이되엿는데 落札總額은 十年度에 比하야 五千圓이더하여 一萬三千圓을 突破되여서 다시 同漁業의 盛漁를 豫想한다

經濟界消息

◎興南製鍊所擴張＝朝鮮鑛業開發會社의 興南製鍊所擴張計畫은 目下 浴鑛爐增設中인데 大體四月中에 完成하리라하며 完成時는 同製鍊所의處理能力은 日產一萬噸豫定이라한다

○小賣店簿記第二回講習會＝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三月十五日부터 同二十日까지 五日間府民館小講堂에서 第一回小賣店簿記講習會를 開催하기로되엇는데 講師는 京城高商敎授山骨武夫氏라고

貨物連帶輸送
朝鮮—臺灣間
十日부터實施

오랫동안 待望되고잇든 朝鮮臺灣間 小荷物及 貨物의 連帶運送取扱은 드듸어 오는三月十日부터 實施키로되엇는데 이것이 實施되는날에는 朝鮮、臺灣間荷物運送에 一段의 光彩를내이게될것이므로 荷主에게는 一層便利하게 될것이라한다。그리고 連帶運送取扱驛은 臺灣은各驛、朝鮮은 主要驛 三十一個驛으로 다음과갓다

大邱 金泉 大田 鳥致院 天安 水原 龍山 京城 仁川 土城 沙里院 黃海黃州 平壤 新義州荷扱所 安東 兼二浦 船橋里 鎭南浦 裡里 松汀里 木浦 群山 鐵原 元山 咸興 城津 羅南 馬山 全州 全南光州 麗水港

滿洲安全農場
管理經營協議

【新京電話商通】 朝鮮總督府施設에關한 營口、鐵嶺、河東、綏化、三源浦五個村의 安全農村의 今年度의 管理經營其他權利事項의 協議會는 來十一、二日兩日에亘하야 大使館에서 開催할터인데 高尾事務官을 비롯하야 派遣員과 東亞勸業으로부터는 本社現地社員이 出席하리라한다

取引停止 (四日)(蓄音機)

鍾路四丁目一八八番地李鍾國

北鮮製紙無配內定

北鮮製紙化學工業에서는 來三月末로서 今期決算을 마으할터인데 今期도 營業을 開始하기에至치못하얏슴으로 無配로 內定하고 四月定時總會를 開하리라는데 總會에는 足立王子製紙副社長이 出席할 豫定이라한다

局鐵朝鮮米發送

三月六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銀買入計畫"
[上] ……今後歸趨를注視

米國國務省에서는 南米各國의 新產銀全部를 사드릴 計畫을 세우고 그買入方法은 이價格에잇서 世界銀市場의 水準을 그基礎로하고 그買入量은 財務省에서 隨時로 決定하며 또 그取引은 南米諸國의 中央銀行을 通하야 行하기로 內定하엿다고 報하다 이것은 米國政府가 昨年十二月十日以來 銀價引上政策을 중지한동시에 그買入을 停止한뒤로는 처음 들리는 새로운消息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米國政府는 銀價에 對하야 沈默을 직히든것을 깨드리고 무슨까닭으로 突然 新產銀에對한 買入計畫을 세우라고하는가 또는 이것은 將次 銀價에 얼마한 影響을 밋치게하고 또國際經濟各方面에 엇더한 波紋을 일으킬것인가 함이 關心을 갓게하는點이다。

×

먼저 簡單히 銀價가 어떠한推移를 밟어왓든가 함을 常識的으로 밝히고자한다 西曆紀元前三千年頃에는 銀이 金보다 貴하엿든 銀價로 銀一에對하야 金十에 比例로 交換되어든일이 잇다고한다 그러나 그뒤 銀의生產이 世界的으로 顯著히 늘엇슴으로 그價格은 떨어지기만하엿다 그래도 一八七〇年頃까지는 金一對銀十六의比價를 維持하야 오래동안 一匁三十錢强의市勢를 保持하엿다 그러치만 英國、獨逸、佛國等의 世界文明國이 金本位制를 採用하고 銀貨의通用을 廢止케되엇슴으로 結局 未開國의 東洋諸國에서만 使用함에 끄친때문에 그市勢는더욱 떨어저 一九一五年가을에는 一匁가 約十四錢까지 暴落하엿다

×

그러나 歐洲大戰의勃發로 一九二〇年에는 最高一匁四十錢近處까지 올라가다가 이亦是一時的現象에 끗치고 大戰後는 各國의銀떨핑으로해서 一九三二年二月에는 六錢三厘라는 新記錄의大暴落을 나타내다 이때에잇서 銀을通貨로하는 中國에는 物價가 暴騰하야 好景氣를 보게되얏도잇섯다 그뒤 一九三四年의열음으로부터 米國政府가 銀買上을 한때문으로 銀價는 暴騰하야 昨年四月에는 一匁三十四錢까지 노프가을 내이고 그로해서 中國으로부터 四億弗以上의銀이 流出되어버리고 떨허서 中國은 때롭한金融에 빠지게되자 昨年十一月四日에 幣制改革을斷行하야 管理通貨制度를 實施하엿다 이結果 銀의密輸出增加는勿論、中國政府 또는 香港政廳에서도 外貨通貨上 銀을내여 팔기를 시작한때문에 米國政府는 昨年十二月十日에 銀買入을 거의中止하여버리다시피 狀態로되고말엇든것이다

×

그런대 米國政府가 銀價吊上政策을 取케된 理由는 루스벨트大統領이 銀產地選出議員들의 應援을 엇어 不況打開의 一策으로 그政策의 出現을 取하엿든것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말한바와 가티 世界의 銀需要國인 中國이 銀本位를 떠나게되고 同時에 銀價低落을 招來한 損失이 莫大케 되엇다 그래서 이것을 看破한 米國政府는 그損失을 避하랴고 銀買入의 中止를 斷行치안을 수가 업섯든것이다 이때에 米國政府가 突然銀買入을 計畫하는것은 그眞意가 那邊에 잇는가 생각되는바이다 即 米國大統領選擧가 今年十一月中에 되는만큼 루스벨트大統領은 그宣傳의 一策으로써 銀價昇上政策을 다시 뒤적어려 본것이 아닌가 하는點이 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에 銀產地買入이라것이 元來 銀產地의不況을 打開하고 떨허서 그波動으로서 全國的景氣의一助가 되게하라는 企圖에서 나온것임으로 大統領選擧를 압두고 銀產地의好感을 사라는생각에서 銀買入計畫이 나온것으로 보는것이 理가 잇지안흘가한다 ……(一記者)……

商況 (七日) 各地모다

株式 續休
全國株式市場 七日도臨時休會

【東京電話電通】 廣田內閣의組閣難으로 東京、大阪株式市場을비롯하야 全國各市場共히 前途難測으로 七日도臨時休會키로決定하얏다

朝取證券部臨休

朝取證券部는 大阪東京市場에順應하야 七日도臨時休會키로決定하얏다

短期解合後의 主要株의取組

朝取證券部의 短期解合後의 主要株 取組現在高는 如左하다

▲東新 取組高六千八百九十株、代引百三十株
▲賣方 小林三〇〇 金光一〇 白井六〇 田原三〇 大原九〇 德泰一〇〇 山口三〇 立山三〇 京證三〇 成淸五〇 松山三〇 古野二〇 金益三〇 東亞二〇 亞細亞七〇 第一證券五〇 明治一〇〇 柳二〇 內海一〇 白築一〇 山本三〇
▲買方 小林六〇 白井六〇 二田 …
▲大新 取組高七百五十株 代引三百七十株
▲賣方 金光六〇 白井三〇 大原一〇 山口一〇 京證三〇 古野三〇 金益一〇〇 …
▲朝新 取組高五千二百八十株 代引千六百六十株
▲賣方 小林六〇 白井三〇 大原七〇 德泰三〇〇 山口一〇 立山六〇 京證 …
▲買方 小林三〇 金光三〇 白井六〇 二田原三〇 大原九〇 德泰三〇 山口 …
▲日產 取組高二千四百三十株 代引六百五十株
▲賣方 金光三〇 白井三〇 大原一〇 …

註＝朝新株는 解合치안헛슴으로 朝新取組는 立會停止前의取組이다。

市場六感

株 廣田新內閣組織難으로 七日도場이서지못햇다▲못서럽 開場決定으로 한쏘를하려고와던仕手들은 허거롭지고 돌아右便▲어떤內閣이成立되던간에 軍事費膨脹、公債增發은 避할수업는 一方 社會政策의增稅或은配當抑制等도考慮되다▲그러나 經濟全體로보면 큰悲觀은不要일지모르나▲投機株는 이러한社會不安이存하는限 活躍難望임을 미리생각해두고 市場開場에臨함이穩當할듯

米 約十日이나 無政府狀態로잇다가 일것組閣의 安定을見하게되더니 陸軍側의 反對로 政局은 다시混亂▲廣田內閣의流產與否는 아즉確斷하기難하나 그러나 流產이된다고하면 廣田氏는 可謂三日天下도못되다▲陸軍側은 廣田內閣의 不滿을表明하고 絕對寺內陸相을入閣시키지 안켓다고 決議하엿스니 結局陸軍側과 協組가업시組閣하기는 强力內閣이 出現된다하면 財界와米界의 今後가 如何할것인가가 注目處▲今後强力內閣의 根本政策이 實現되며 增稅를 하게되는때는 一般經濟界에 直接影響을주어 株式界에 一陣軟風이襲來하거가 十常八九▲그리되면 米界에도 間接的으로 그打擊을바들모양?▲그러나 硬派는此에反하야 强力內閣은 即農民을擁護하게됨으로 米價는 反히昂騰할것이라고云云 果如何?▲短貯解除後의農家는 依然賣惜方針을取하야 賣急하는傾向이 업더니 今日부터仁川에는 產地實物이 廻着되기始作한다니 果從前과如히 稀薄하자아니할것만은 事實이엇다 두고보자

米期 少押後에 强高
前場頑强

昨後場阪地 三十一圓四十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三十二錢에 場을止한市況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三十七錢인 三丁反落을補하고 二十九圓二十三錢인 九丁低로 場을始하더니 阪地一圓三十六錢까지 小動하엿으로 反히强味를添하야 四十錢에 止場하얏슴 伴하야 二十三錢으로最低로 結局三十九錢에 兩强히場을 止하엿다

後場續高

後場은 二十九圓四十四錢에 五丁高로 始場後 二、三節四十八錢에 續騰이고 五節四十七錢으로 四十四錢에止場하얏다。

米價前途如何
强力內閣이면

廣田內閣은 陸軍側의 不滿으로流產이되지안흘가 한物議가多하다 實로廣田內閣의流產되고 아니되든은 今日中으로 左右間判定될問題이나 그러나 萬一廣田內閣이流產되고 國防擴充을根本政策으로하는 增稅論者의强力內閣이出現한다假定하면 米價에對한影響이 어더할것인가? 此에對하야 强軟兩者의 主張하는바를綜合하면 硬派는 日强力內閣의出現은 即軍部의目標하는 政策그대로의實現을見하게되엇으로 經濟界의好轉을期待할수업스나 弱少農民을擁護하는關係上 米界에는好感을呈하야 어느程度까지의 昂騰을 見하게될것이라하며 軟派는 此에反하야 經濟界의 不振으로 株價가反落하는때는 米價도間接으로 그만한打擊을免치못할것이라고主唱한다 果如何?

政局又復渾亂
米價는伸悩

約十日間이나 無政府狀態에빠저잇든 無形的內閣은 西園寺公의 愼重한 考慮를거듭한結果 廣田外相에게 大命이 降下되어 渾亂하든 政局은 原狀恢復을 보게되고 米界의人氣도 俄然强化하엿든바인데 昨日의 一段高價를示하엿든바 俄然軍部首腦部에서 反對의 烽火를 擧하야 廣田內閣은 … 今日에잇서서 內外에 直面한 根本的新政과 國防의充實等 積極的强力政策을 遂行할實力이잇다고 認定할수업다하야 寺內陸相의 入閣을拒絕하기로 決議하엿슴으로 廣田氏의組閣은 中途唐突의 難境에 處하게되어 今日부터再開키로되엿든 株式市場은 다시立會延期를 보게되엿스며 米界에는 別影響이업스나 不知中人氣가 惡化하야 各地共히 多少의 反落을 보게되는데 今後의 內閣組織이 如何한結果를 招來할지 政局이 安定되지안코는 米界도 當分간途彷徨의現象으로 時日을 費할모양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 當限 ▲買方 … 中限 … 先限 …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正米側 乘換地場弱氣 中谷
▲買方＝地場强氣北川 潮先僟(?)甚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의 保合을보고 高狀一息氣味인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三十五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不變 產地賣 躊躇態度로 取引이 圓滑히 되지안코 唱 …

釜山續進 正租의 關係로 奧地의 解除米도 賣止的態度로 低價賣物이 影響을激하야 先約側의 買埋等으로 續十錢高唱이 丸ㄱ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十五錢

大邱保合 賣方이 後條的으로 進치안코 買方이 常用必需取引이 散見되는程度에不過하야 丸ㄱ三等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七十錢

群山續伸 月初이라著 期米의 好調를 移하야 日本內地의買氣가 比較的旺盛하고 昨日보다 更히五錢上向인 菱ク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

木浦同調 高價를 생각하는 產地는 依然强하나 市中商談不進으로 丸木三等二十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丁

朝取期米 (七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融 七日

◆海外經濟◆ ◆對外爲替◆ ◆京城手形交換高◆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金買入價◆ ◆京城市中金融價◆ ◆東京金利◆ ◆大阪金利◆ [figures illegible]

米穀 七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京城穀物◆ [figures illegible]

商品 七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綿布◆ ◆鮮滿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figures illegible]

期米 七日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 ◆各地期米◆ ◆各地正租市況◆ (單位錢) [figures illegible]

商品 七日

◆大阪綿系◆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系◆ ◆大阪砂糖◆ ◆海外砂糖◆ ◆海外商品◆ [figures illegible]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大阪期米 先限、三等米 一石、正租(仁川)一等、一斤價三等 ◆市中金融價 … ◆株 朝新・東新・日產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大阪棉花・大阪人絹・大阪砂糖・고무現 [figures illegible]

精米用石粉 藤井商會 平壤府船橋里驛前 電話五九七番

金銀白金地金賣買分析 高價買入 丸福商店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 電話本局三六九四番

土金 石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 電話本局四八五六